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신의 역할과 의미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지 연

2022년 8월

#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신의 역할과 의미

지도교수 허 남 춘

이 지 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이지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현 능 환   
위 원 강 문 중   
위 원 허 남 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Chogong·Igong·Samgong Bonpoori>  
The Role and Meaning of the Goddess

Ji-Yeo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m-Chun Heo,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 대상과 방법 .....	10
II.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 서사 .....	15
1. 인물 간의 관계 비교 .....	15
2. 공간 이동에 따른 운명 전환 .....	24
III.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신의 역할 .....	35
1. 생산과 복력 관장 .....	35
2. 문화전달자 .....	42
3. 인세 화합 신 .....	49
IV.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여성신의 의미 .....	55
1. ‘공’의 의미 .....	55
2. 문학적 의미 .....	58
3. 종교적 의미 .....	62
IV. 결론 .....	66
<참고문헌> .....	70
ABSTRACT .....	76

▶ 표 차례

[표1] <초공>·<이공>·<삼공>의 이본 목록 .....	11
[표2] <초공>, <이공> 여성신의 감금 및 죽음에 대한 원인 .....	30
[표3] <초공>, <이공> 여성신의 이중적 시련·회복 구조 .....	36
[표4]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고난·극복과정 .....	54

▶ 그림 차례

[그림1] <초공> 주요 인물 관계도 .....	22
[그림2] <이공> 주요 인물 관계도 .....	23
[그림3] 여성신의 이중적 시련 구조 .....	31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제주도 큰곳에서 구송되는 일반신 본풀이<sup>1)</sup> 중 <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삼공본풀이><sup>2)</sup> 여성신의 서사를 중심으로 공통된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세 본풀이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공>·<이공>·<삼공>은 큰곳에서 순차적으로 불리는 본풀이이다. 명칭 또한 열두본풀이 중 위 세 본풀이에서만 순서를 뜻하는 “초·이·삼”에 “공”이라는 어근이 붙어 있어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풀이 서두에 “초공은 신불휘, 이공은 꽃불휘, 삼공은 노불휘”<sup>3)</sup>라 언급하고 있어, 단순히 본풀이 명칭에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다. 본고에서는 <초공>·<이공>·<삼공>의 연관성 규명을 위하여 여성신 서사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전역에 전승되는 <초공>·<이공>·<삼공> 동계의 서사물에서 여성신의 역할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초공>은 <당금애기> 계열, <이공>은 고소설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안락국태자경> 계열<sup>4)</sup>,

1) 본풀이는 신(神)의 근본 내력과 행적 등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를 의미한다. 주인공의 출생과 성장, 고행, 결연 등의 과정을 거쳐 결말에 신으로서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일대기 구조를 갖춘다. 본풀이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신 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할 수 있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752-753쪽.) 이 중 일반신 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과 인문사상과 관련하여 신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내력담이다. 일반신의 이야기는 한반도 전역에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어 전도적 차원의 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위의 책, 771쪽.)

2)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의 언급부터 <초공>, <이공>, <삼공>으로 축약한다.

3) 문무병, 『제주도큰곳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206쪽. 이종춘 심방의 구연본과 더불어 다른 이본들에서도 “뿌리”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초공은 신빨리 꿩웁네다. 살려웁서. … 이공(二宮)은 꽃빨리가 꿩웁네다. 탁상우전 살려웁서. … 삼공은 전상드리 꿩웁네다.”(현용준, 위의 책, 60쪽.) ; “초공은 신빨리~이공~은 꽃빨리, 삼공은 전상연드립네다.”(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154쪽.)

4) 이밖에 유사한 작품으로는 서사무가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및 구전서사시 <안락국태자경>, 『석보상절』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 고소설 <안락국전> 등이 있다. 서대석은

<삼공>은 <내 복에 산다>계 설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히, <초공>과 <이공>은 고구려 신화인 <주몽신화>와 <유리왕신화>의 서사 구조 및 신화소가 동일하여 상당한 친연성을 가진다.<sup>5)</sup> 이러한 친연성은 공통으로 어머니라는 점 이외에도 생산력과 관련한 곡모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sup>6)</sup> <삼공>의 가문장아기<sup>7)</sup> 역시 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원초적 생산성에 기반하고 있다. <초공>·<이공>의 여성신은 주변신, <삼공>은 주신(主神)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생산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 본풀이가 전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성신의 성격과 서사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사 전승 과정에서 상호 간에 교류가 있었고 동시대에 발현된 이념 및 문화 흐름으로 인하여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풀이는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직과 그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서사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신을 주인공의 어머니, 조력자로서의 역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고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신에게서 공통으로 가지는 곡모적 성격이 신화의 고형 화소라는 점 때문이다. 원시에서 고등까지 문명적 차원을 넘어 대부분 신화에서의 신은 “자연 생명력이 인격화된 것”<sup>8)</sup>이다. 대지에서 솟아나는 산물들은 생명력을 상징하며, 여성의 생식(生殖) 기능과 닮아 농경신화에서 여성신이 주신(主神)이었다.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자로서, 대지의 생산성을 상징적으로 돕는 존재로 간주되었다.”<sup>9)</sup> 조동일은

---

이와 같이 동계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변이된 형태로 보았다.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29쪽.) 하지만 논자는 다수의 자료와 활발한 전승을 이유로 들어 “이공본풀이계”라 칭한 김창일의 의견을 따르고 있으나,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156쪽.) 본문에서는 <이공>이 본토의 문학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 짓고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

- 5)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3, 46-48쪽.
- 6) 허남춘, 위의 책, 2013, 50쪽. 허남춘은 여성신의 곡모적 성격이 제주도의 당본풀이, 삼성신화, 고구려 주몽신화와 공통 특성이라고 하였다. 논자는 앞서 본문에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 서사가 주신과 대등하며, 곡모적 성격 또한 이들 여성신에게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규명은 본문 내에서 순차적으로 풀어 증명하고자 한다.
- 7) 본풀이의 신명(神名)은 이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2장에서 본풀이 별 주된 이본의 선정을 함에 따라 해당 이본의 명칭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으나, 그 외의 이본을 필요에 따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신명(神名)을 대표로 삼아 따른다.
- 8) 조지프 캠벨, 구학서 옮김, 『여신들-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청아출판사, 2016, 53쪽.

“신화가 정착하는 단계의 시점”에 따라 서사시를 원시, 고대, 중세서사시로 구분하였다.<sup>10)</sup> 원시서사시는 식물의 생명성과 관련된 신화가 형성된다. 고대서사시는 영웅적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 시기부터는 여성영웅과 관련된 전승이 파괴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세서사시는 불교와 유교의 이념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무속과 갈등관계 속에서 융합되어 서사의 변이가 이루어진다.<sup>11)</sup> 이 중 원시서사시는 여성의 생산력과 관련하여 대지의 어머니로서 지배적인 위치의 여성신 신화<sup>12)</sup>가 두드러진다. 즉, 여성신이 가진 원초적인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신이 가진 근원적인 생명력에 주목하여 이들의 역할을 재규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여성신을 바라보는 시각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서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공>·<이공>·<삼공>의 여성신에 대한 평가는 <삼공>의 가문장아기를 제외하고는 양분화된 평가를 받는다. <삼공>의 가문장아기는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반면,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은 어머니로서의 희생 정신을 강조하여 “어머니”라는 역할에 한정 짓거나 희생을 통해 고난·극복 과정을 거친 주체적인 여성으로 평가한다. 한국 설화의 여성 서사는 ‘희생’적 행위가 사회 특정한 가치, 즉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여성관과 인간으로서 상황 극복의 의지가 동시에 투영된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내면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발현된 것이다.<sup>13)</sup> 이는 곧 고대, 중세에 이어 서사가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원시서사시 속 여성신의 영웅적 모습은 서사 속에서 흔적만이 남거나 소실되어 원래의 형태를 잃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sup>14)</sup> 따라서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이 곡모신적 역량과 서사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모습만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체적 여성의 표상인 <삼공> 가문장아기는 비교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9)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I : 원시 신화』, 까치글방, 2013, 165쪽.

1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35쪽.

11)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陶南學報』 23, 도남학회, 2011, 17-25쪽.

12) 조지프 캠벨, 앞의 책, 2016, 67쪽.

13)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한국여성철학』 9, 한국여성철학회, 2008, 24쪽.

14) 허남춘, 앞의 논문, 19-23쪽.

여성의 모습을 대변한다. 하지만 결말에서 주인공이 부모와의 재회를 통해 부모가 눈을 뜨는 이야기는 고전소설 <심청전>과 흡사하다. 서사의 영향이 ‘한반도-제주도’ 중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sup>15)</sup>, 본풀이에 기존부터 있었던 요소라면 유교 사상 속에서 효관념이 담긴 가치 있는 설화로 인식되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게 된<sup>16)</sup>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삼공>은 크게 변형되지 않은 반면에 <초공>과 <이공>은 구비 전승되면서 많은 풍화를 거쳐 본래의 서사가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신 서사의 재검토 과정을 통해 인물의 평가 또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역할과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 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신의 재평가와 세 본풀이 간의 연계성 규명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여성신의 평가는 가부장제라는 이념에 국한되어 바라본 경향이 강하다. 제주 신화는 신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性的)인 차등보다는 균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평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공>과 <이공> 여성신의 서사가 주신(主神)의 서사와 비중이 대등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성신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본풀이의 서사를 여성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세 본풀이의 연관성에 대한 꾸준히 제기된 의문에 비하여 관련 연구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공>·<이공>·<삼공> 여성신들의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고 더 나아가 세 본풀이의 연관성 규명에 새로운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재평가이다. 둘째, 여성신의 성격 및 역할을 중심으로 한 <초

1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28쪽.

16) 현승환, 「『내 북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47쪽.

공>·<이공>·<삼공> 간의 연계성 확인이다. 위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들을 점검하여 본고가 나아갈 방향성을 재고하고 보완해 나갈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초공>과 <이공>의 연구는 무조신, 주화(呪花) 차지 신의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서사적 관점<sup>17)</sup>과 무속 의례적 관점에서 논의<sup>18)</sup>된 경향이 지배적이다. <삼공>은 <내 복에 산다>계 설화로서 동일 유형의 상관관계 연구<sup>19)</sup>와 <삼공> 단일 서사 구조 분석<sup>20)</sup>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기존 한국 신화에서 여성신 연구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sup>21)</sup>하고 여성의 다양한 역할론적 관점에서 논의<sup>22)</sup>되었다. 특히, 제주 신화가 가

17) <초공>의 서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일, 「한국무속서사시의 서사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시환, 「초공본풀이의 구조분석」,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98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민속언어논총』, 제주문화, 1992 ; 이경화, 「무조신화에 나타난 무조신의 형상과 신적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류정월, 「종교적 영웅 서사로서 <초공본풀이> 연구 - 무조신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다음으로 <이공>의 서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 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10, 제주학회, 1993 ; 양용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통과의례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혜정, 「자식 점지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18) <초공>의 의례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진주희, 「제주도 무구(巫具)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29, 2011 등.

다음으로 <이공>의 의례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1, 한국무속학회, 2020.

19)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 현승환, 앞의 논문 ; 구보라, 「<내 복(福)에 산다>형(型) 설화에 나타난 복관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0)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진승 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3 ;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허남춘, 「<삼공본풀이>의 운명과 문명, 그리고 공존」, 『한국문학연구』 6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21)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2010 ; 정진희,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 - '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22)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母神像)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어문학회, 1998 ; 김정호, 「한국 신화의 여성주인공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경민·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 양영수,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탐라문화』 3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1 ; 이은희, 「한국 설화 여성인물의 영웅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경민, 「구비설화의 어머니 형상을 통해 본 모성과 여성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지는 의의를 여성신 신화에 내포된 양보와 포용의 원리를 드러내며 고찰하였다.<sup>23)</sup> 특히, <초공>과 동계의 서사물 <당금애기>는 여성 주체적인 서사로 후대의 남성 서사에 의해 밀려났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sup>24)</sup> 주목하고자 한다. 고난 극복을 통해 당금애기는 한 단계 성장하고 독자적인 신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써<sup>25)</sup> <초공>의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생산력에 기반한 곡모신적 성격 논의가 선행되어 있다.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가 깊은 궁에 갇혔다 나오는 것을 ‘죽음과 재생’의 관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신연우는 소녀에서 여성으로 가는 입사담적 요소로 보았다.<sup>26)</sup> 아기씨가 겪는 고통의 극치를 농경신화적 곡모신 성격과 연결하여 “세계의 질서가 신의 관념으로 수용되는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sup>27)</sup>

이유경<sup>28)</sup>은 서사무가 속 여성신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여성 정체성의 탐색 양상과 의미를 ‘삶’과 ‘죽음’의 대립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정체성”과 “종속적 관계”를 극복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때 죽음으로부터 재생하는 과정은 삶-죽음의 이원적 대립을 이겨내고 재탄생하는 존재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위 연구들은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의 재생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산성에 주목하였다. 어머니라는 사회 관념에 덧씌워진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성격을 토대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 2014.

- 23) 조현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 『濟州島研究』 36, 제주학회, 2011 ; 양영수, 「제주신화의 여성원리 : 그리스신화와와의 비교」,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김영주·이석주,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 구조에 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8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 24) 장장식, 「신화를 통해서 본 여성의 임무와 그 의미」, 『민속학 연구』 3, 국립민속박물관, 1996 ;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25) 김준기, 「당금애기 巫歌 研究」, 『高凰論集』 15,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4 ; 이영지, 「‘당금애기’ 이야기의 공간」, 『배달말』 29, 배달말학회, 2001 ; 박성은, 「<당금애기>를 통해 본 여성 삶의 원형 연구 - 딸에서 어머니, 어머니신이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6)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 27)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 28) 이유경,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 -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40(1), 어문연구학회, 2012.

반면, <이공> 원강암이는 사라도령과 할락궁이의 신분적 지위 상승을 위해 희생된 피해자로 평가되었다. 정진희<sup>29)</sup>는 <이공본풀이>와 <할망본풀이>의 유사성을 ‘수레멜망악심꽃’과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이공>에서 할락궁이가 ‘수레멜망악심꽃’을 사용하여 어머니 원강암이를 살려내는 과정은 ‘부(父)-자(子)’ 질서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 희생의 결과물인 것이다.

신호림<sup>30)</sup> 또한 사라도령과 할락궁이가 자신들의 존재론적 변화를 위하여 원강암이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폭력이 매개가 되어 서사의 추동력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가치체계의 전복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공>은 폭력이 서사의 주된 요인임을 들었다. 남성 인물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원강암이를 죽인 제인장제를 징치함으로써 폭력의 과정은 은폐하고 “선이라는 윤리적 규범과 당위라는 행위적 규범”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강암이는 도구적 존재로서 남성신이 신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된다. 사라도령보다 할락궁이에서 그 폭력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친부를 알기 위해 원강암이의 손을 뜨거운 술 위에 올리고, 원강암이를 죽인 죄로 제인장제의 일족을 죽음으로 단죄하여 궁극적으로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직 좌정이라는 단편적인 화소에 집중한 나머지 원강암이의 주체적인 의지와 행동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공>의 서두에서부터 원강암이의 적극적인 의지 발현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특히,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떠나는 여정에 원강암이 자신도 함께 동행할 것을 자처하였고, 더 이상 여정을 함께 하지 못할 때에도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팔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김신정<sup>31)</sup>은 여성의 장소적 경험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제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죽음과 그로 인한 신체의 분리는 자신이라는 경계를 해체하고 신화적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여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와는 반대로

29)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0) 신호림,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기호학적 의미」, 『기호학 연구』 46, 한국기호학회, 2016.

31) 김신정, 「여성인물의 이동과 장소적 경험의 의미-〈이공본풀이〉와 〈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원강암이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앞서 <초공> 노가단풍 증지맹왕아기씨의 재생과 연결 지어 지모신으로서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관념하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문장아기가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역량 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중점을 둔 연구 위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동훈<sup>32)</sup>은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가문장아기와의 분리에서부터 비롯되고, 다시 재회·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를 ‘구원’으로 보았다. <삼공>과 그 동계의 설화들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유와 독립이 세상사의 순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문장아기와 마통이 삼형제와의 관계를 통한 가문장아기가 성장하는 측면은 간과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김현수<sup>33)</sup>는 가문장아기의 존재론적인 변화 과정을 집단의 대립과 결연 양상으로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변화의 시작은 부모와의 대립에서부터 기인한다. 가문장아기가 외부로 축출된 이후에 마통이와 결연함으로써 문화집단의 변화를 겪고, 잔치를 통해 부모로부터 자신의 생산력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세대적·사회적 변화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향애<sup>34)</sup>는 신화 속 여성신이 새로운 공간에서 스스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문화적 차원에서 여성신이 이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새로운 공간에 발현되면서 문화를 창조한다. 경계인이 아닌 새롭게 이동한 공간의 중심인물로 지위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들의 직능이 이들 신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문화라고 보았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과 관련한 연구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공간과 관련이 깊다. 각 본풀이 서사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일정한 흐름에

32)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33) 김현수, 「『삼공본풀이』에서 나타난 가문장아기의 생산력의 세 층위」, 『한국무속학』 41, 한국무속학회, 2020.

34) 이향애, 「제주 여신 신화에 나타난 경계인의 형상화와 그 의미 -<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칠성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a.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여성신의 이동 양상을 주체적으로 볼 것인지, 비주체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여성신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분되었다. 그러나 공통으로 여성신이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적인 측면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초공>·<이공>·<삼공>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 본풀이가 공통된 특질 하에 논의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진행된 바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김현선, 이수자, 신연우가 이와 관련하여 선구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어 검토하고자 한다.

김현선<sup>35)</sup>은 세 본풀이와의 관계를 제의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종합적인 제전으로 큰굿이 운용되는 원리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근본적인 단계이자 일정한 범주 내의 의례가 진행되는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초공>·<이공>·<삼공>은 초상계에 구송되는 본풀이이자 굿판에서 삼천전저석궁 당클에 있는 신격으로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신들, 즉 초월적인 신들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이수자<sup>36)</sup>는 큰굿형성집단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큰굿의 구조적 원리를 정립했다. <초공>·<이공>·<삼공>은 “인간의 생사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의 차원”으로 <할망본풀이>, <차사본풀이>, <사만이본풀이>와 함께 분류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로서 세 본풀이가 “죽음과 환생에 대한 문제”, “운명의 문제”를 다루었던 제의로 보았다.

위의 연구들은 큰굿의 전반적인 연계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출해낸 성과이다. <초공>·<이공>·<삼공>의 연계성 분석이 논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큰굿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었다. 그래서 이들 세 본풀이 간의 관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초공>·<이공>·<삼공>의 연계성 규명을 위해 여성신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의는 신연우의 연구가 유일하다. 신연우<sup>37)</sup>는 본풀이 구연자와 주된 단골이 여성인

35) 김현선, 「제주도 큰굿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특히 신굿에서의 <초공본풀이>와 <초공맞이>의 사례를 구실삼아-」, 『제주도 큰굿의 이종준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36)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37)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점을 토대로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 세 본풀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여성신의 고난 극복 서사를 통해 현실을 대하는 여성의 세 가지 모습을 제시했다. 높은 현실의 장막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여성,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 모색하는 여성,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으로 구분한다. 이는 세 본풀이 여성신의 모습을 각기 투영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조선조 리기철학과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각 본풀이에서 여성신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해명하였다.

이제까지 문제 제기만 되어 왔던 <초공>·<이공>·<삼공>의 관계를 주 담당층의 관점에서 현실의 여성과 본풀이 속 여성신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본풀이 여성신을 실제 여성에 투영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놓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히려 본풀이 서사 간의 유기적 관계 규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이 공간의 이동에서 겪게 되는 경험적 신장이 곧 신직 좌정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신이 본풀이 서사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미 추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향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간의 이동이 곧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주요 기제로 신들의 신직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과 방법

여성신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는데 앞서, <초공>·<이공>·<삼공> 각 본풀이의 이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세 본풀이 이본의 수는 각 12편, 12편, 11편이다. 본풀이의 전체적인 서사 검토를 위해서는 각 이본의 공통 서사와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본풀이 별로 이본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초공>·<이공>·<삼공>의 이본 목록<sup>38)</sup>

채록 연도	채록자	구연자	채록 자료집	발간 연도
<b>초공본풀이</b>				
1930 -1933	赤松智城·秋葉隆	박봉춘	『朝鮮巫俗의 研究 上』	1991
-	문무병	이중춘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9
1962	장주근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
1994	문무병	이중춘	『제주도큰굿자료』	2001
-	현용준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2008
2008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2010	허남춘 외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2011	허남춘 외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2014	허남춘 외	서순실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1956 -1963	진성기	김명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016
1956 -1963	진성기	김병효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84	고광민	양창보	『제주도 동북신굿』	2019
<b>이공본풀이</b>				
1930 -1933	赤松智城·秋葉隆	박봉춘	『朝鮮巫俗의 研究 上』	1991
-	문무병	이승순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9
1962	장주근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
1994	문무병	한생소	『제주도큰굿자료』	2001
-	현용준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2008

38) 차례의 순서는 채록 시기가 불명확한 이본들이 있어 자료집의 발간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이본들의 내용을 다룰 때는 채록 시기와 발간 시기 모두 고려하여 검토한다. 표에 명시된 이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 東文選, 1991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문무병, 앞의 책, 2001; 현용준, 앞의 책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2009 ; 허남춘 외, 앞의 책, 2010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 강정식 외, 『제주도 동북신굿 : 무가편 ②』, 국립무형유산원, 2019 ; 강정식 외, 『제주도 동북신굿 : 무가편 ③』, 국립무형유산원, 2019.

2008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2010	허남춘 외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2011	허남춘 외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2014	허남춘 외	서순실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1956 -1963	진성기	조홀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016
1956 -1963	진성기	고산용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84	고광민	김명선	『동복신굿』	2019
<b>삼공본풀이</b>				
1930 -1933	赤松智城·秋葉隆	박봉춘	『朝鮮巫俗의 研究 上』	1991
-	문무병	문순실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9
1962	장주근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
1994	문무병	한생소	『제주도큰굿자료』	2001
-	현용준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2008
2008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2010	허남춘 외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2011	허남춘 외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2014	허남춘 외	서순실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1956 -1963	진성기	김계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016
1984	고광민	김명선	『제주도 동복신굿』	2019

<초공>·<이공>·<삼공>은 큰굿에서 연달아 함께 구송하기 때문에, 채록된 자료 모두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굿의 특성상 심방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채록자의 자료집에서 본풀이마다 다른 구연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방은 <초공>에 담긴 내력에 근거하여 동일한 무업 조상을 모시고 동일한 굿법을 통해 굿을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굿법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굿판에 참여하는 심방 모두 큰심방의 맹두 한 벌로 굿을 하게 됨<sup>39)</sup>에 따라 구연자가 다

39)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67-168쪽.

를지라도 동계의 서사로 관념한다.<sup>40)</sup>

또한, 세 본풀이를 모두 구송하는 구연자일 경우에도 큰심방이 같다면 그 이본의 양상이 비슷하게 전개된다. 앞서 분류한 이본들 중에서 큰심방은 대표적으로 이중춘, 안사인, 양창보이다. 양창보 심방은 서사 양상이 다른 이본들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두드러짐에 따라 본고에서는 본풀이의 주 서사로서 양창보 심방의 구송본은 제외한다. 따라서 여성신 서사를 분석할 때 <초공>은 이중춘본을, <이공>은 이용옥본을, <삼공>은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옥 심방은, 이중춘·안사인 심방과 함께 제주도 동쪽의 대표 심방 중 하나로서 <이공>의 이본들 중 중점적으로 다루는 화소가 잘 담겨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위 이본들을 중심 서사로 삼고,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을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성신을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초공>에서 여성인물은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가 등장한다. 유정승따님애기는 최초의 심방으로서 의의를 가지지만, 이를 신격을 가진 존재와 대등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초공> 여성신의 서사는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를 위주로 분석하고 유정승따님애기는 부차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II장에서는 <초공>·<이공>·<삼공> 여성신 서사를 중심으로 다른 인물과의 관계와 공간 이동 양상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신 모두 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원인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다. 외부에 처해지는 고난과 극복하는 이야기는 통과 의례와 동일하다. 따라서 주신(主神)과의 관계 비교를 통해 세 본풀이의 여성신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초공>과 <이공>에서 주신과 여성신이 모자(母子)의 관계를 뛰어넘어 개별적인 신성한 존재로서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간 이동 과정에서 형성된 인물 간의 관계에 함의된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40)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다니며 무업활동을 배운다. 이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무업조상인 맹두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른다. 맹두의 무업조상은 <초공>에 근거하여 삼시왕(젓부기 삼형제), 유정승따님애기와 같은 ‘보편조상’과 더불어 제주도 유명 심방 혹은 각 마을의 메인심방들인 ‘개별조상’으로 나뉜다. ‘개별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맹두를 물려 받게 됨에 따라 심방이 된다.(강소진, 위의 논문, 161-162쪽.) 이에 따라 같은 맹두를 쓰는 심방들은 그 무업을 공유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관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세 여성신의 공통된 역할을 도출한다. 여성신의 역할은 생산과 복력의 측면, 문화전달자, 인세를 화합하는 신으로의 좌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신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Ⅳ장은 큰곳에서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한다. 본 장에서는 여성신의 서사와 주신(主神)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세 본풀이가 공통으로 가지는 ‘공’의 의미를 확인한다. 그리고 문학적·종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초공>·<이공>·<삼공>이 가지는 연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 서사

본 장에서는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을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신은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함에 따라 특정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통과의례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집단과 상황을 맞이하고, 스스로 그 의례를 완수하여 새롭게 획득되는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받는다.<sup>41)</sup> 여성신은 대립되는 인물과 보완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신성성을 증명하며 홀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업을 헤쳐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신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현하거나 보완 및 발전해 나간다. 이에 따라 각각의 본풀이에서 여성신이 맺는 인물과의 관계와 공간의 이동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 1. 인물 간의 관계 비교

<초공>·<이공>·<삼공>의 여성신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범주는 부모에서부터 외부의 존재들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여성신은 주신과 모자(母子)지간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상호 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로 인해 모두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삼공>의 주신인 가문장아기도 남성 인물과의 관계 형성 이후에 신으로 좌정하지만, 극적인 변화가 다소 미비하다. 오히려 가문장아기는 부모와의 대립을 통해 존재론적인 성장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초공>·<이공>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대립 구도와 더불어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물 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여성신에

---

41) 양용준, 앞의 논문, 55쪽.

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각 본풀이의 여성신과 주요한 갈등 구도를 일으키는 인물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사회통념 속에서 전형적인 인물이었지만, 주자선생과의 만남으로 원하지 않은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 주자선생은 황금산에서 삼천선비와 함께 달구경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달보다 고운 아기씨의 얼굴을 보고 “본메본장”(증거가 되는 물건)을 두고 오는 것을 목적으로 내기를 하게 된다. 내기에 승낙한 주자선생은 아기씨의 명과 복이 짧아졌기 때문에 “권제삼문”을 받아 다시 이어주기 위함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아기씨의 집을 찾아간다.

아기씨가 쌀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선생은 일부러 떨어뜨리게끔 만든다. 아기씨의 머리를 몰래 세 번 쓰다듬고는 후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며 황금산으로 돌아간다. 아기씨는 느진덕정하님으로부터 주자선생의 송낙과 장삼 한쪽을 뜯게 하여 “본메본장(증거물)”으로 삼는다. 주자선생이 아기씨의 머리를 쓰다듬은 까닭으로 아기씨는 삼형제를 잉태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주자선생과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의 만남은 내기 외에도 내막에 또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기의 본래 목적은 아기씨의 얼굴을 보고 “본메본장”을 내어주는 것이다.<sup>42)</sup>

그러나 아기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게 함으로써 “본메본장”을 준다는 것은 물성만이 아니라 후대를 이을 자손을 남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아기씨는 양반의 자제로서 혼전임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집에서 축출되는 수난을 겪게 된다.

이후, 주자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아기씨는 여러 장애물을 지나 황금산에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주자선생은 찰벼의 겨를 모두 벗겨오라는 과업을 내줌으로써 아기씨에게 또 하나의 시련을 준다. 과업 수행 이후, 주자선생은 중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아기씨와 부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아기씨는 홀몸으로 삼형제를

42) 이본에 따라 주자선생이 아기씨를 만나러 오는 목적은 다르다. 김명윤본에서는 내기에서 진 까닭으로 아기씨를 만나러 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고광민이 채록한 양창보본에서는 별의 정기를 가늠하여 아기씨가 15세를 넘기기 어려워질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제삼문을 받고자 찾아간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표면적인 목적과 실상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외에 박봉춘본, 이중춘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김병효본, 고순안본, 서순실본은 삼천냥 혹은 벼슬, 절간과 같은 금전적·지위적 보상을 얻는 것 또한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출산하고 양육하게 된다. ‘중의 신분’으로 인해 발생한 현실적인 제약은 아기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는 삼형제에게 드리워질 고난을 예고한다.

<이공> 원강암이는 적극적인 의견 피력으로 상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행하는 인물이다. 인물 간의 주된 갈등 양상은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수반하는데, 우선 제인장제와 가장 참여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원강암이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여정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원강암이가 발병이 나게 됨에 따라 사라도령에게 요청하여 제인장제의 제인장제의 집에 자신을 종으로 팔기에 이른다.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떠나고, 홀로 남겨진 원강암이에게 제인장제는 밤마다 찾아와 하룻밤 보낼 것을 요청한다.

그날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당하여 가난

청세초롱(靑紗-籠) 불 밝혀~, 천연장제, [말] 문을 오랑 독독~허게 두들명,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소리] 월광암인 구들에 앓았단, “아이고 누게우짜?”, “나 천연장제(千年長者) 만연장제(萬年長者)가 돼노라.” “어떻허연 옵데가? / 우리 국에 법은 벳 쏘곶에 벤 아기 낭 석 들 열흘 백일 넘어야 몸 허락을 험네다.

이국에 법은 몰르쿠다.” / 그 말 허난 속안, 청세초롱 불을 밝혀 나고 간다.

그 아기 낭는 건 보난, 아덜이 솟아나난 / 할락궁이로 이름 지왔더라.

...(중략)... 그 아기가 옥아~, 혼두 설이 넘어가난

두 설 식 설 적이 웨영 걸음말 헤여가난, 막맹이 강알에 좁저 놓고 허연, 마당에 간 물놀이 허멍 어러식식 돌아뎡겨 가난 / 그날 밤인 따시, 등세초롱 불을 밝혀 놓안 / 오라시난, 이 핑계 저 핑계 허멍 헤여가난, ... (후략)<sup>43)</sup>

제인장제가 자신의 방에 찾아올 때마다 원강암이는 아기의 탄생과 성장을 이유로 제인장제의 요청을 거절한다. 여러 번의 거절을 당한 제인장제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원강암이를 죽이고자 한다. 이때, 셋째 딸이 등장해 할락궁이와 함께 벌역(罰役)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여 원강암이를 살려둔다. 원강암이는 밭 깨진 향아리에 물 채우기, 할락궁이는 나무 오십 바리를 하는 벌역을 행하게 된다.<sup>44)</sup> 제인장제와 원강암이는 주종관계에 있다. 제인장제는 주인이

43)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74-175쪽.

44) 이본에 따라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행하는 벌역이 조금씩 다르다. 박봉춘본·고대중본·조흥대본·고산옹본은 원강암이가 물명주 다섯동이·강명주 다섯동이를, 할락궁이는 낮엔 나무 오십 바

자 남성으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원강암이를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원강암이가 여러 번의 거절을 하자 육체적인 고통을 부여하는 주체자가 된다.

그러나 원강암이가 겪는 이러한 갈등은 아들 할락궁이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벌역을 쉬는 날에 할락궁이는 어머니에게 콩을 볶아 달라 청한다. 그리고는 뜨거운 솥 위에 어머니의 손을 강제로 올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결국 원강암이는 할락궁이의 아버지의 정체와 더불어 가족 내력 등 모든 사실을 알려준다. 이후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원강암이에게 자신이 가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 받고는 떠나게 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묻기 위하여 원강암이와 일시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원강암이는 자신과 대립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제인장제는 ‘벌역’이라는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준 반면, 할락궁이는 자신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복’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가문장아기와 주된 갈등을 겪는 인물은 가문장아기의 부모이다. 계와시(거지)였던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막내 가문장아기를 낳고 난 이후 점차 재산이 모이다가 천하거부가 되어 부족함 없이 잘 산다. 이때, 부모는 세 딸을 불러 누구 덕에 잘 사는지를 묻는다.

흐를날은 비는 축신축신 오는데 강이영성광 흥운소천 부베간(夫婦間)이 앓아들서 하도 심심 야심흐난 딸아기덜 랑 문답(問答)이나 허여보저.

“큰딸아기 이레 오라. 은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흐 느냐?” / “하늘님도 덕(德)이웨다. 지에님(地下-)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 / “큰딸아기 기뜯(奇特)흐다. 어서 느 방으로 가라.”

...(중략)... “죽은딸아기 이레 오라. 가문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흐느냐?” / 가문장아기 말을 흐뵈,

---

리·밤엔 노끈 오십발을 꼬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할락궁이가 어렵지 않게 벌역을 행함으로써 그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여준다. 한생소본은 본문과 동일하게 원강암이가 밭 깨진 향아리에 물 채우기, 할락궁이가 새끼를 꼬거나 나무 오십 바리를 한다.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애님(地下-)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마는 나 배또롱 알에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홉네다.” /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헌 예즈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sup>45)</sup>

부모의 질문에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 언니는 부모의 덕분에 산다고 말을 함으로써 부모는 만족한다. 반면에 가쁜장아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는 말을 함에 따라 부모는 분개한다. 이는 부모의 무의식에 자식이라면 응당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가정의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쁜장아기의 발언은 부모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모와 가쁜장아기의 갈등은 가정 내 질서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부모가 가쁜장아기를 축출시킴으로써 그 힘을 과시함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고조된다.

막상 막내 딸이 떠나자 걱정이 된 부모는 두 언니를 불러 식은 밥에 물이라도 주고 보내라며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나 두 언니는 가쁜장아기에게 부모가 때리려 하니 어서 도망가라는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가쁜장아기는 오히려 두 언니들을 지네, 용달버섯으로 환생<sup>46)</sup>시키고는 떠난다. 돌아오지 않는 딸들을 기다리던 부모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안맹(眼盲)이 되고 많던 재산들은 사라지게 된다. 결국 부부는 다시 게와시(거지)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한다. 앞서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축출되어 아기씨 홀로 고행을 겪은 것과 달리 <삼공> 가쁜장아기는 부모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쁜장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부자가 되지만, 가쁜장아기가 떠남과 동시에 가세가 기울어진다는 점은 가쁜장아기의 존재가 복 그 자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신이 위기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공>에서 직·간접적으로, <이공>에서는 직접

45) 현용준, 앞의 책, 168-169쪽.

46) 가쁜장아기가 자신의 두 언니들을 향해 ‘누구야-해라’라고 하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면서 주술성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호칭-명령’의 언술은 또한 원시 고대적 언어성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술을 하는 주체인 가쁜장아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어의 주술성이 지닌 신화의 원시성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녕과 풍요를 비는 기능과 함께 저주를 일삼는 주술성이 느껴지고 샤먼적 기질을 보인다.” 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62-163쪽.

적인 도움을 받는다. <삼공>에서는 간접적으로 막내 마통이의 배려를 받는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고난에 처한 상황을 해소해 주기 보다는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태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공>에서 조력자의 도움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서의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sup>47)</sup>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장애물들을 건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건너기 어려운 바다를 마주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건네준 “금봉채”를 통해 다리를 내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된다. “금봉채”는 아기씨가 축출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일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내어준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금봉채”가 중요하게 도움을 줌으로써 아버지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sup>48)</sup>

여러 “드리”를 건너고 청수와당과 흑수와당까지 무사히 지나왔지만 “수삼천릿길(數三千里路)” 앞에서 건널 방도를 찾지 못해 주저앉아 운다. 그때 아기씨 앞에 용왕의 권속(眷屬)인 흰강아지, 거북 등 조력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기씨는 무사히 주자선생을 찾으러 갈 수 있게 된다. 위 대목은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엄수(淹水)를 건너는 과정과 유사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금와왕의 기병들을 피하다 엄수(淹水)에 이르러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때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하백의 손자임을 밝혀 길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주몽의 신성한 존재로서 고귀한 존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이 단락에서 주몽의 모습과 닮아 있어 아기씨 또한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주몽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도움을 받지만, “백강생이”는 살아생전 아기씨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도움을 준다.<sup>49)</sup> 주몽이 하늘의 자손으로서 그에 걸맞는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47) 무엇보다도 막내 마통이의 배려는 ‘비조리 초막’이라는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인 “2. 내부에서 외부로의 공간 이동”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48) 이본들을 종합해 보면 아기씨를 축출하는 주체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이다. 본문에서의 “금봉채”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초공>의 주 인용본인 이용옥본과 더불어 이중춘본, 서순실본에서 드러난다. 이밖에도 이본에 따라 박봉춘본, 고대중본, 김병효본은 부모가 보기 싫다고 하여 아기씨의 떠나는 인사를 받지 않는다. 어머니도 함께 간접적인 도움을 보여주는 이본은 양창보본인데, 열두문을 건널 때 필요한 열두폭 치마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

면, 아기씨는 이와 더불어 본래 가지고 있는 심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로부터의 위기 극복은 주자선생이 부여한 과업의 해결을 위해 또다시 등장한다.

츠나룩 식동이를 내여주멍, 착살 어시 깡 오랜 허난  
 노가단풍 츠지맹왕 애기썸 츠나룩 식동일 반안 / 느려산 비새(飛鳥)ㄹ찌 울어간  
 다 이- / 흐나 두 개 까가난, 손콧 아판 못까가니, / 무정눈에 줌은 드난, 하늘엔  
 부영새, 땅 아랜 도덕새 / 준치새, 만흠새여 안당(內堂)엔 노념새 밧당(外堂)에  
 시념새여 / 동이 ㄹ(邊)에 아잔 오조조조 일림고나. / 줌 질에 후어 저새 흐난,  
 새는 놀아나고, / 츠나룩 식동이 착살 없이 까지난, 아상 간에 주점선생시디간  
 드리치난, …(후략)<sup>50)</sup>

아기씨는 과업인 찰벼의 겨를 벗겨내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온갖 새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의 조력을 통한 고난의 해결은 <이공> 원강암이가 제인장제의 벌역 수행에서도 등장한다. 원강암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받는다. 원강암이의 원활한 벌역 수행을 위해 등장하는 조력자 역시 ‘온갖 새’로 등장한다. 조력자로서 ‘온갖 새’의 등장은 <초공>·<이공>에서 여성인물이 신성한 존재<sup>51)</sup>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sup>52)</sup>

49) (안사인 본) “너는 어떤 짐승이 돼느냐?” / “상진(上典)님아 상진님아, 나를 모르리까? 상진님이 임정국 땅에 실 때 나를 사랑하게 네기단 병(病)들언 죽으난 스신요왕(四神龍王)에 데껴부난 요왕국(龍王國) 거북스제(龜使者)가 돼였수다. 상진님아, 염네(念慮) 말앙 나 등에 올라 탑서. 검은 암췌(黑牝牛)도 올라 탑서. 수삼천릿(數三千里)질을 냉겨드리리다.” 현용준, 앞의 책, 139-140쪽.

50) 문무병, 앞의 책, 1999, 133쪽.

51) 다만, 원강암이가 벌역을 행할 때에 새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본문에서 <이공>의 주 인용문인 이용옥본과 더불어 한생소본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의 “신성한 존재”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강암이의 적극적인 성격과 어머니로서 할락궁이를 양육하는 모성성에 초점을 두어 원초적인 생산력을 지닌 여성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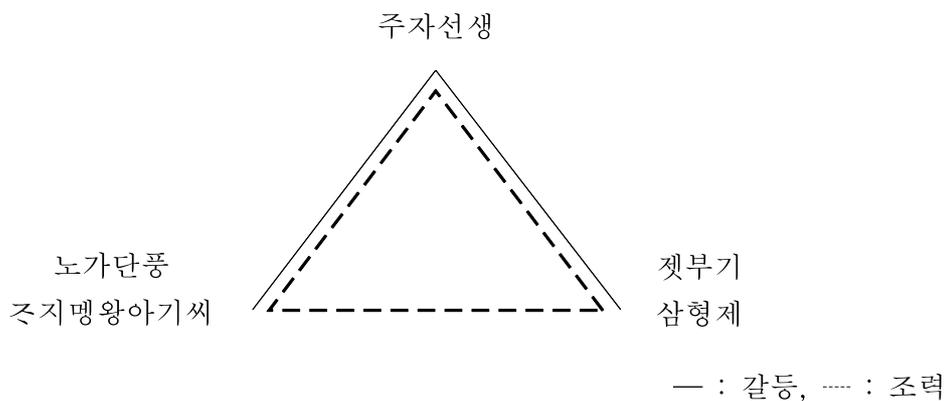
52)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고귀한 신분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를 일종의 “마법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자와, 「<콩쥐팍쥐> 설화 연구 -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8쪽.) <초공>의 노가단풍 츠지맹왕아기씨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주자선생과 만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신분의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아기씨가 주자선생이 내준 과업의 통과를 위해 초월적인 조력자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은 “수삼천릿질”을 건너기 위해 용왕의 권속들이 도와주는 것에 연결선상으로 본다. <이공> 원강암이 또한 어떠한 신분의 변화 없이 고난의 양상으로 등장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과 여주인공의 능력이 닿아 있는 모습으로 곡식

이 외에도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고행의 길을 걷게 한 주자선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젓부기 삼형제를 잉태하여 입덧이 심할 때, 느진덕정하님이 열매를 쉽게 딸 수 있도록 주자선생이 바람을 불어주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은 아들 젓부기 삼형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젓부기 삼형제는 아버지 주자선생이 중의 신분인 까닭에 그 신분을 물려받게 된다. 아버지의 신분은 젓부기 삼형제가 과거 시험을 위한 여정에서부터 삼천선비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결국에는 과거 합격이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다시 젓부기 삼형제가 자신들의 재능으로 연주문을 맞춤으로써 장원급제를 한다. 하지만 삼형제의 과거 합격을 시기하는 삼천선비에 의해서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가 죽음과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깊은 궁에 갇히게 된다. 삼천선비와 젓부기 삼형제의 갈등은 신분의 차이로부터 드러나는 한계를 보여준다. 즉, 아버지의 신분으로 인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갈등의 주 요인이 된다.

젓부기 삼형제가 가진 신분상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어머니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가 깊은 궁에 갇힘으로써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다시 주자선생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위치의 존재로서 젓부기 삼형제를 신으로 좌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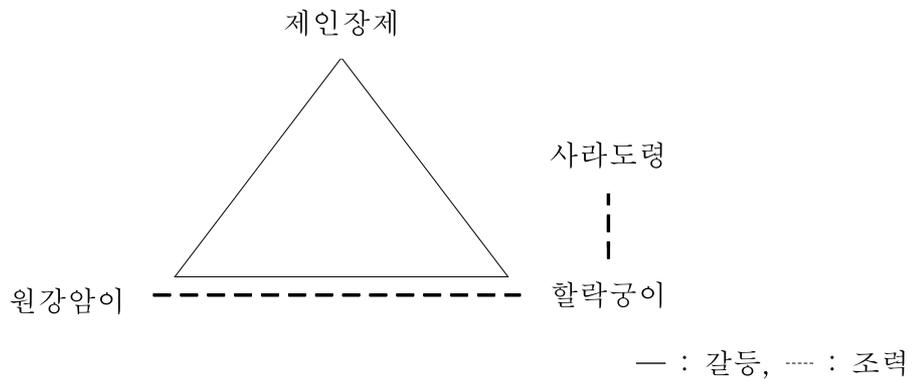
[그림1] <초공> 주요 인물 관계도



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곡모신의 모습과 가깝게 보인다. (허남춘, 앞의 논문, 2011, 23쪽.) 따라서 본래 신성한 존재였던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 서사에서 이러한 <신데렐라> 유형의 삽화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주자선생으로 인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 젓부기 삼형제가 겪게 되는 고행은 모두 사회통념에서 벗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각각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의 부모, 삼천선비가 이들에게 보이는 냉담한 시선과 그에 따른 차별을 통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인 초월적 존재로 승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젓부기 삼형제는 주자선생을 통해서,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주자선생에 의해 신이 된 젓부기 삼형제로부터 위기의 극치를 극복한다. 종합적으로 주자선생은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젓부기 삼형제 모두에게 고난과 극적인 도움을 선사하는 이중적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이공> 주요 인물 관계도



<이공> 원강암이 역시 일시적으로 대립 구도를 가졌던 할락궁이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자신이 떠나온 사이에 원강암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락궁이는 아버지 사라도령의 도움으로 제인장제를 징치하고 원강암이를 살릴 곳을 가지고 이승으로 다시 내려온다. 할락궁이는 제인장제 일족을 모두 죽이고, 원강암이를 다시 살려낸다. 이후, 할락궁이와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앞서 <초공>에서 초월적 존재가 되어 한계를 극복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초공>과 <이공>의 인물 간의 관계는 단일하지 않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 2. 공간 이동에 따른 운명 전환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은 모두 부모와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다. 하지만 이들이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 집 바깥이라는 외부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당초 주어졌던 평탄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공간 이동은 인물이 직접 고난과 맞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신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여성신 별로 공간 이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동의 활발함 정도에 따라 나열해보면 <초공>-<이공>-<삼공> 순이 된다. 여성신이 이동하는 공간은 그저 머무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이동 원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신이 이동하는 공간과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세 본풀이의 여성신들은 공통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곳에서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정체성을 형성 혹은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외부로의 공간 이동은 여성신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각 인물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외부의 공간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초공> 노가단풍 츠지맹왕아기씨의 공간 이동 양상을 구분지으면 다음과 같다.

주년국 - 여정 속 장애물 - 황금산 - 불도땅 - 깊은굴

주년국은 아기씨와 부모가 사는 ‘집’이 있는 곳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안정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억압된 곳이다. 15세가 되었을 때, 부모는 벼슬살이를 위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부모는 아기씨와 함께 떠나지 못해 고민에 잠긴다.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기씨를 “마흔 9둑 모란장 서른 9둑 빗골장 스물 9둑 고무살장(살창)”에 가두어 놓는다. 그리고는 느린덕정하님을 불러 구멍을 통해 아기씨를 잘 돈본다면 중의 신분에서 벗

어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느진덕정하님은 아기씨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후, 아기씨를 가둔 살창에 부모가 각각 자물쇠로 잠그고 그 열쇠는 서로 교환하여 간직하고 떠난다.

아기씨의 감금은 모든 이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화소로서, 살창의 정교함에 대한 묘사만이 이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아기씨를 감금하는 살창의 묘사와 느진덕정하님에게 부모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표면적으로는 아기씨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부모의 부재 하에 느진덕정하님의 감시, 세밀한 살창과 이중으로 잠근 자물쇠를 통해 아기씨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기씨의 나이가 혼인적령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부모의 통제는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부모가 아기씨를 새로운 세상과의 교류와 어른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 아기씨를 감금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기씨는 어떠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름으로써 순종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부모의 이와 같은 원천 차단에도 불구하고 아기씨는 주자선생과의 접촉으로 잉태하게 된다. 이를 이유로 집안에서만 지내던 아기씨가 외부로 축출되게 된다. ‘집’에서 아기씨는 사회통념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후 처음 바깥세상에 나와 여러 산과 바다, 다리를 건넘으로써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이동의 반복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칭하기 어렵지만, 장애물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장애물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기씨가 건너는 장애물은 자연물과 “○○드리”로 명명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때, “○○드리”는 아기씨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드리”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다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황금산을 올라사가니 광광새에 불이 부땀더라  
느진덕정하님아, 저건 어뎡흔 뉘이고? / 혼 일 알고 두 일 물론 상전님아,  
잔 잠은 풀은 안터레 집니다. / 부모 가심에 불 부뜨는 것이우다. / 이 드리도  
넘어산다. / 다시 가단 보난, 굴형에 진 물이 동산더레 찰랑찰랑 지데검구나.

느진덕정하남아, 저건 어떤 녀이고? / 아버지 어머니 노아 두고 즈식(子息)부떠  
 먼저 오기로 / 거신 물 거신 드리가 뵈네다. …(중략)…  
 건지산이 근당흔니 식갑머리 등에 지연 애기 뵈거 보기싫고나.  
 식갑머리 육갑에 다완 건지 엮어네 건지산도 넘어간다.<sup>53)</sup>

아기씨는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질문하고 이를 느진덕정하남이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여정을 이어간다. 아기씨의 물음은 자연물이 아닌 “○○드리”에만 국한되는데, “○○드리”는 모두 아기씨와 부모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된다. 이후 아기씨는 “건지산”을 올라감에 따라 미혼 여성의 상징이었던 길게 뺏은 머리를 위로 올림으로써 부녀자로서 행색을 갖춘다.<sup>54)</sup> 이는 아기씨가 중의 자식을 잉태하여 정식으로 혼인을 올릴 수 없음을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드리”를 건너는 행위를 통해 아기씨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느진덕정하남의 답변은 아기씨의 무지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선생을 만나기 전에 부녀자의 행색을 미리 차리고 자신이 더 이상 양반의 딸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다짐을 하는 것이다.<sup>55)</sup>

여러 장애물을 건너 주자선생이 사는 황금산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도 아기씨는 안식하지 못한다. 주자선생은 오히려 아기씨에게 과업을 부여하고 수행 이후 “시왕곶은연질”을 통해 불도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한다. “시왕곶은연질”에 대하여 채록자 문무병은 ‘숨은 길’과 ‘구부러진 길’로 해석하여 젓부기 삼형제를 잉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자 시련으로 보았다.<sup>56)</sup> 이와 같은 해석은 아기씨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고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씨는 고향인 주년국에서 나와 삼형제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간인 불도땅에 이르기까

53) 문무병, 앞의 책, 1999, 128-129쪽

54) 이 내용은 양창보본에 상세히 구연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참조하고자 한다. “데가리 꼭 누룩 떠 머리 풀언 그 물에 머리모욕을 허고, 시갑머리 육갑에, 갈라다완, 방폐건지 허연, 넘어가명 허는 말이, “오늘까진 우리가 처녀의 몸이난, 오늘지 이후로 우린 부인의 몸이 아니우파. 머리 건지허영 넘어사사 합니다.” 허남춘 외, 앞의 책, 2010, 115-116쪽.

55) 이와 같은 노가단풍 지지맹왕아기씨의 자아 인식은 未分의 상태로, “현실이 너무 크고 막강해서 자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세상에 대한 시각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다. 신연우, 앞의 논문, 2010, 243-244쪽.

56) 문무병, 위의 책, 132쪽.

지 고난의 연속이다. 이는 홀로 감내해야 하는 과정으로써 조력자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러한 고행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은 개인의 수행과도 같은 모습이다. 간혀 있던 삶에서 스스로 부딪히고 깨우치는 과정을 통하여 아끼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질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되는 필수 과정인 것이다.

<이공> 원강암이는 앞서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달리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기반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의지는 사라도령과 아들 할락궁이와 관련하여 발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강암이가 이동하는 공간을 구분 지으면 다음과 같다.

원진국 집 - 원강암이 집 - 억새밭 - 제인장계 집 - 동백나무 아래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

원강암이의 아버지 원진국 ‘집’에서는 <초공>의 ‘집’보다 의견 피력이 자유로운 편이다. 원강암이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발현으로 원강암이가 사라도령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다. 원강암이와 사라도령의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중에 함께 절에 기차치성을 드리러 간다. 그 과정에서 구덕혼사를 맺게 되는데, 문제는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원강암이의 아버지 원진국은 거부(巨富)인 반면에, 사라도령의 아버지 김진국은 가난하게 산다. 구덕혼사를 맺을 때에는 경제적 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녀 모두 15세가 되어 혼기가 차게 되자 원진국이 변심하게 된다. 그러나 혼사담을 계속 거절해 오던 원강암이가 사라도령이 보낸 혼사담에 바로 승낙을 하게 된다. 원진국은 자신의 딸이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면 고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우려의 말을 보낸다. 이에 원강암이는 “잘 살아도 나 팔저(八字)고 / 못 살아도 나 복력(福力)”<sup>57)</sup>이라고 말함으로써 혼사를 추진한다.

원강암이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왔지만, 가난한 집안의 사라도령과 혼인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sup>58)</sup> 이후, 서천꽃밭으로의 여정에서 자신도

5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71쪽.

58) 이본 중 진성기가 채록한 김병효본, 조홀대본에서 가난한 형편이 강조되어 드러난다.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부임하라는 명의 수행을 위해 차사들이 사라도령을 찾으러 내려온다. 이때, 차사와 원강암이가 마주치게 된다. 길을 묻는 차사에게 원강암이는 대접할 쌀이 없다는 이유로 시

동행할 것을 주장하고 사라도령은 원강암이의 의사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길을 가던 도중에 원강암이가 발병이 남에 따라 더 이상 여정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하룻밤을 억새에 의지하여 잠이 드는데, 원강암이가 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집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달라고 청한다. 사라도령은 원강암이의 말에 따라 닭의 주인인 제인장제의 집에 원강암이를 종으로 판다. 이후, 부부가 맞상을 받아 자식의 이름을 짓고는 이별 인사를 나눈다.

원강암이는 제인장제의 집에 종으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다. 제인장제의 집에서 원강암이는 종의 신분이지만, 제인장제의 하룻밤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다. 지속적인 거절로 제인장제의 분노를 사 벌역(罰役)을 행하게 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정체를 묻는다. 이때, 원강암이는 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sup>59)</sup> 이후 사실을 모두 알려주고, 할락궁이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 서천꽃밭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간 곳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에 따라 제인장제가 할락궁이의 행선지를 물어도 원강암이는 침묵한다.<sup>60)</sup> 원강암이는 결국 동백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원강암이에게 내부 공간은 부모, 그리고 혼인 후 사라도령과 함께 살았던 집이다. 그곳에서 원강암이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반면, 제인장제의 집에서는 오히려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인장제의 집에 들어온 이후, 원강암이는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라는 또 다른 신분을 얻게 된다. 원강암이의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신

---

간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사라도령의 부모에게 쌀을 빌리고자 하나, 시택 역시 가난하여 쌀을 내어주지 못한다. 결국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사들이 이를 껄뻘하게 여겨 사라도령을 몽둥이로 때림으로써 정치하게 된다.

59) 본고에서 <이공>의 주 인용본인 이용옥본에서는 바로 대답하지만, 이승순본, 고대중본, 조홀대본, 고산옹본에서는 정답을 회피하거나 침묵한다. 이는 아버지의 정체를 바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60) 원강암이의 침묵하자 제인장제가 고문을 하여 할락궁이의 행선지를 알고자 한다. 하지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강암이는 침묵하게 된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가는 여정에서 “무릎친물”, “존둥이 친 물”, 목까지 찬 물을 건너게 되는데, 이는 곧 원강암이의 침묵을 위한 다짐의 대가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다. 대부분의 이본에서는 원강암이가 다짐을 하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으나, 진성기가 채록한 김병효본, 조홀대본에서는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중 김병효본에 구송되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년장젠, / 아 그놈으 즈속 / 만릴 더 가시난 어디를 가신고? / 이젠 이 년을 죽이키여, / 앞 밭디 강 장검걸라 / 뒷 밭디 강 버텨걸라 / 즈강놈도 불르라 / 숙청기도 꼬조우라” / 원강택일 죽일팔로 돌루명, / 성틀에 울러종완 / 초택임 와드득기 틀명, / “느 바른 말을 해라” / “예. 바른 말을 ㄱ라도 / 그 말이우다.” / 이택임을 받아도, / 삼택임을 받아도 / “그 말이우면” 혼난 / 이젠 애개길 환도레 옷단 / 확기 끈찬, 뽀뽀이명 대강이명 / 뎃딱 청대왓테레 옷단 / 드리쳐부난, …(후략)” 진성기, 앞의 책, 79쪽.

분 중 어머니의 직분에 더 집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롭게 활락궁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원강암이는 불가피한 행동의 변화를 취하게 된 것이다.

<삼공> 가문장아기에게 공간의 이동은 <초공>과 <이공>보다 그 고난의 정도가 미비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문장아기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해 두고 공간의 이동 양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가문장아기가 이동하는 공간을 구분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의 집 - 비조리 초막 - 가문장아기의 집

가문장아기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은 개인 의견 피력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자신의 덕 덕분으로 산다고 이야기 함에 따라 외부로 축출되게 된다. 이때, <초공>·<이공>의 노정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타의에 의해 내부에서 외부로 축출되지만, 낯선 길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 여정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흐쓸 시난 큰마통이 들어오더니마는,

“요 우리 어멍(母) 아방(父) 우린 애쓰게 마 파당 배(腹) 불게 맥이당 보민 넘어가는 때간아이 드려당 노넘허염구나.” / 후욕(詬辱)한다. …(중략)…

죽은 마통인 먼 정으로 들어사멍 서른 둘 닛바디 허우덩씩 웃으멍

“하 이거 우리 집의 난디웃이 감은 암체여 사름이여 문 들어오난, 어느 하늘에서 도웨는 일이나 아니가.” 반가이 흐멍 들어온다.<sup>61)</sup>

하룻밤 유숙을 위해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삼형제가 사는 “비조리 초막”으로 들어와 신세를 진다. 때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통이 삼형제가 가문장아기와 마주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나그네의 방문에 첫째와 둘째 마통이는 불쾌함을 느끼며 거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막내 마통이는 반가워하며 맞이한다. 첫 만남에서 세 마통이의 상반되는 반응은 가문장아기가 “비조리 초막”에 머무는 동안 여러

61) 현용준, 앞의 책, 171-172쪽.

상황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마를 주식으로 삼는 마통이 가족은 마를 삶아 나눠 먹는다. 첫째와 둘째 마통이는 가장 큰 부분을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가장 작은 부분은 어머니와 가문장아기에게 나눠 준다. 이와 달리 막내 마통이는 가장 큰 부분을 어머니와 손님인 가문장아기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작은 부분을 먹는다. 가문장아기가 보답으로 술에 밥을 하여 줄 때에 첫째·둘째 마통이는 “버령이 밥”이라고 하며 거절을 하지만 막내 마통이는 받아 먹는다. 앞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태도와 손님이 정성껏 내온 음식을 받아드리는 모습에서 막내 마통이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외부의 세상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결과적으로 <초공>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와 <이공> 원강암이는 타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궁에 갇히거나 죽음을 맞이한다. 결말부에서 <삼공> 가문장아기의 전개와 차이를 보여 <초공>·<이공>을 함께 확인한 이후에 <삼공>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는 삼형제의 과거 합격을 시기한 삼천선비의 계략으로 깊은 궁에 감금된다. 원강암이는 할락궁이의 도망을 방조한 죄로 동백나무 아래<sup>62)</sup>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연유는 행위가 현 상황에 대한 반발심 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표2] <초공>, <이공> 여성신의 감금 및 죽음에 대한 원인

본풀이	행위 주체	행위 사유	행위 객체	객체의 결과
초공	삼천선비	젯부기 삼형제 과거 합격에 대한 질투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	깊은 궁에 간힘
이공	할락궁이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나기 위한 서천꽃밭으로의 여정	원강암이	동백나무 아래에서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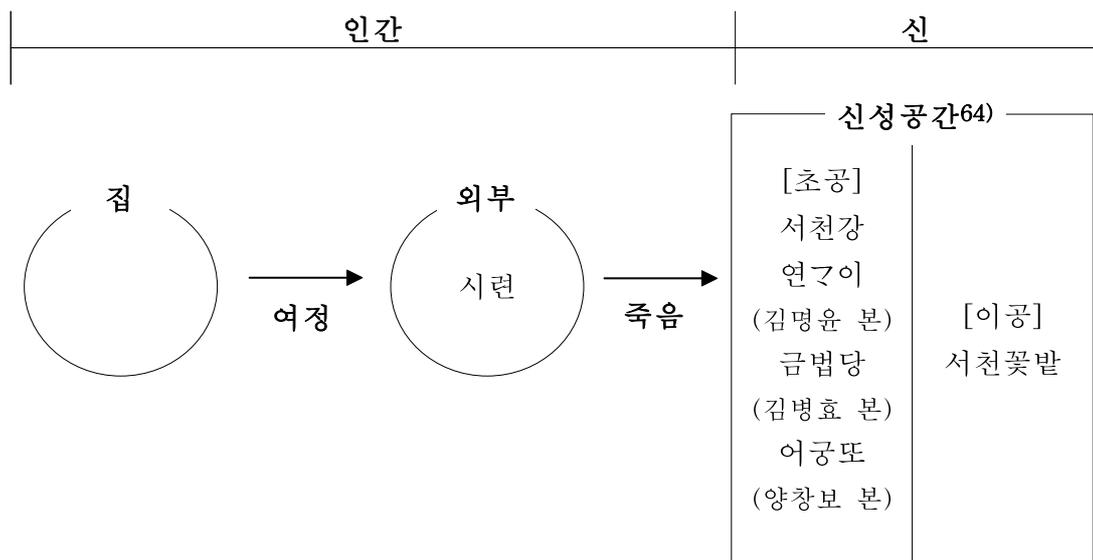
이때 따르는 고난은 여성신이 온전히 안고 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고

62) 이본에 따라 청대밭(박본출본·안사인본·조홀대본) 또는 본문과 같이 동백나무 아래(이승순본·고대중본·한생소본)에서 원강암이의 시체가 놓여 있다. 이때, 원강암이 시체의 훼손 정도가 이승순본에서처럼 큰 대나무가 원강암이 뼈 위로 자라있어 처참한 모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난은 직접적인 고행이 아니라,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유희로 상징된다. 이에 따라 아들은 신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가 악인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린다. 결과적으로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신당, <이공>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이라는 신성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출생과 고행, 죽음과 재생이라는 각각의 대립적인 상황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 통과제의의 서사에서 ‘출산’은 주체를 특정한 공간에 묶어두고 결국 ‘죽음’을 야기함과 동시에 ‘출산’을 통한 새로운 주체의 탄생으로 ‘재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은 삶의 종결이자 여성 서사에서 통과제의의 종료를 의미한다. 즉, ‘죽음’은 ‘재생’의 전제조건이자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제의의 종결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통과제의의 서사와 신으로서의 좌정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sup>63)</sup> 따라서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이 겪는 시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림3] 여성신의 이중적 시련 구조



63)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105쪽.

인간으로서 겪는 고난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벌어지는 반면, 인간에서 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신분 변화는 죽음-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이와 같은 희생은 고정적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데, 아들이 신으로서 역량을 쌓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고난 끝에 새롭게 재생되는 장치로 기능한다. 즉,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전과 다른 초월적인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기존의 자신이 죽고, 새롭게 자신이 태어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친다. 재생은 내적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련을 통해 얻은 성장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sup>65)</sup> 타인에 의해 받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며 인내한 여성신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에서 신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비조리 초막”에서 다음 공간의 이동은 막내 마통이와 결합에 따라 함께 살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막내 마통이를 통해 이타적인 태도를 깨닫게 된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막내 마통이에게 금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를 계기로 들은 거부(巨富)가 된다. <삼공>에서 공간의 이동은 앞서 <초공>·<이공>에서 신성공간으로 이동하여 신성성을 발현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가문장아기의 공간 이동의 원인에 따라 달리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고대광실 높은 집 - 비조리 초막 - 고대광실 높은 집'

즉, <삼공> 가문장아기가 공간을 이동하는 흐름은 ‘복’의 이동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 서두에 등장하는 “고대광실 높은 집”은 가문장아기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머물게 되는 곳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 원초적인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축출된 이후에 “비조리 초막”이라는 가난한 집에 머물면서 가문장아기는 막내 마통이

64)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가 신으로 좌정하지 않고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이용옥 본)나 별도로 공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박봉춘·서순실 본)은 생략하였다. 전자는 주접선성과 젓부기 삼형제의 활약 등이 더욱 강조되어 있고, 아기씨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이 다른 이본들보다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특수한 화소가 담긴 이본이라 판단하고 위 표에서 생략한다.

65) 이유경, 앞의 논문, 2012, 208-209쪽.

로부터 배려심을 배우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다시 거부(巨富)가 되어 “고대광실 높은 집’ ”에서 계와시(거지)들을 대상으로 백일 잔치를 열어 자신이 가진 복(福)의 능력을 증명한다.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성한 능력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배움으로써 그 능력치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이공> 원강암이의 이동 양상과 <삼공> 가문장아기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공>과 <이공> 여성신은 한 번 떠난 장소는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동의 방향이 직선이다.<sup>66)</sup> 반면, <초공>과 <이공>의 주신(主神)은 신성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행의 장소로 돌아와 어머니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 “순환적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삼공> 가문장아기 역시 주신으로서 <초공>과 <이공>의 주신과 같이 “순환적 움직임”이 가능함과 동시에 여성신처럼 직선적 움직임 모두 가능하다. 순환적 움직임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유사한 상징성을 가지는 장소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앞서 두 주신과 차이를 보인다. <삼공>에서 ‘집’은 부(富)를 상징하는 것으로 곧 복(福) 받았음을 의미한다. 처음과 마지막의 ‘고대광실 높은 집’은 복을 가정이라는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영위하다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즉, 복은 타인과 함께 나누었을 때 값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막내 마통이와 함께 사는 집에 부모가 찾아와 서로를 확인하고 다시 함께 살게 된다. 처음 ‘부모의 집’과 동일하게 가문장아기와 부모가 한 공간에서 합일을 이룸으로써 공간의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직선적 움직임은 이를 공간을 향유하는 주체가 다르고, 물리적 공간이 다르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동 방향이 직선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삼공> 가문장아기는 공간 이동의 방향이 직선·순환적인 속성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주신과 여성신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은 모두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고난을 겪게 된다. 그 고난의 정도는 인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 속에

66) 박봉춘본과 이용옥본에서는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가 재생 이후에 주년국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동의 순환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두 이본에서만 드러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67) 황인순, 앞의 논문, 105-106쪽.

서 여성신 모두 신성한 존재로 승화한다. 그 방향은 직선적이기도, 순환적이기도 하다. 그 기준에 대하여 출산 및 본풀이 주신의 여부와도 관련이 깊다. 출산하는 여성신의 경우 한 번 갔던 공간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가쁜장아기의 경우 공간을 순환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행동이 출산을 대신<sup>68)</sup>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여성신은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외부로 나감으로써 변화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여성신의 공통된 특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

68) 황인순, 앞의 논문, 106쪽.

### Ⅲ.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신의 역할

#### 1. 생산과 복력

신화에서 여성 형상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생산성이다.<sup>69)</sup> 신의 위계질서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신은 삼승할망의 뒤를 잇는 비교적 상위에 속한 신들이다. 큰 굿집단에서 생각하였을 때 여성이 가진 어머니적인 원리, 곧 모성지향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성신의 서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가장 여성적인 원리를 거친 신만이 상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고”<sup>70)</sup>를 보여준다.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천부지모사상이 나타난다. 신적인 존재는 하늘, 그와 혼인하는 여성은 대지를 상징한다. 대지는 지상의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생산을 통해 그 존재들을 생(生)하게 하는 공간이다. 농경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 여성의 생산능력은 만물을 생산하는 대지에 빗대어 여성신은 곧 대지의 어머니로서 관념해왔다.<sup>71)</sup> <초공>과 <이공>에서도 천부지모형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초공> 주자선생이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황금산에서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가 사는 주년국땅으로 내려온다. 주자선생의 비범한 능력과 선구안 적인 시선을 통하여 그가 천상의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공> 원강암이와 사라도령의 결합 역시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다. 사라도령이 절대자에 의해 꽃감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는 이미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내정되어 있던 존재<sup>72)</sup>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상의 존재는 사라도령으로, 지상의 존재는 원강암이가 된다.

농경 신화에서 신적인 존재와 혼인을 하는 여성은 보편적으로 생산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sup>73)</sup> 신화에서 여성은 인간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지남에 따라

69) 최원우,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147-148쪽.

70) 이수자, 앞의 책, 375쪽.

71) 조지프 캠벨, 앞의 책, 2016, 67쪽.

72) 양용준, 앞의 논문, 41쪽.

73) 신연우, 앞의 논문, 2009, 23쪽.

신성한 공간으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사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입사식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때, 여성의 입사 과정은 햇빛이 차단된 굴속에 갇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4)</sup> 공통으로 ‘어둠’을 상징하는데, ‘빛’의 세계로 가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통과제의의 과정이다.<sup>75)</sup>

<초공>·<이공>의 여성인물은 단절된 공간에서 1차 감금을 경험하고 타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2차 감금 상태에 이르게 된다.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가 15세 되었을 무렵 부모가 자신을 마흔여덟 살장에 가둔 것과 원강암이가 종의 몸으로 제인장제 집에 머무르는 것 또한 이동의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금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감금과 해방의 반복을 통해 여성신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표3] <초공>, <이공> 여성신의 이중적 시련·회복 구조

여성신	1차 감금	결과-생산	2차 감금	결과-재생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	마흔여덟 살장	출산	깊은 굴	여성신으로 좌정
원강암이	제인장제의 집		대나무 밭에서 죽음	

결합에 따른 생산, 그리고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농경적 사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경적 사고에서 죽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sup>76)</sup>. 이는 식물의 씨앗에서 발아와 수확, 그리고 이듬해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아와 수확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서 죽음과 삶이 평행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신은 재생의 과정을 통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신이자 주신(主神)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성신이 되는 과정은 타력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차 감금 공간을 중심으로 혹은 전후 상황에서 각각의 원초적인 생산성을 짐작할 수 있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출생부터 남다르다. 부모가 기차치성을 드

74) 신연우, 앞의 논문, 2009, 27쪽.

75) 한가연, 「실화에 나타난 동굴의 상징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쪽.

76) 조지프 캠벨, 구학서 옮김, 앞의 책, 2016, 97쪽.

려 태어난 아기씨는 뛰어난 외모로<sup>77)</sup> “구시월 단풍”이 만연한 계절에 태어난다. 아기씨의 이름은 태어난 계절에서 본을 따와 이름을 “이산 앞은 발이 벌고, 저산 앞은 줄이 벌나, 왕대월산 금하늘 노가단풍 즈지맹왕(紫朱明王) 아기씨”라고 짓는다. 신화에서 인물의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한다. 가을은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로 사계절 중 인류가 가장 풍요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sup>78)</sup> 이름을 이처럼 자연 상태로 지었다는 것은 “아기씨가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곡모신으로서의 역할과 포용적인 존재로서 해석되기도 한다.<sup>79)</sup> 이와 같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의 이름을 통해서 내포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기씨는 1차 감금 공간으로부터 떠나와 외부 공간에서 여러 물리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신성한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주자선생을 찾아가는 여정 중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 용왕의 권속 거북이, 주자선생이 ‘츠나룩’을 까기 과업 수행을 위해 온갖 새들의 도움을 받아온 것이다. 이는 아기씨가 나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신성한 공간인 바다와 하늘의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아기씨가 단순히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아기씨는 비록 지상에 머물고 있지만 하늘의 존재와 버금가는 신성한 인물인 것이다.

<이공> 원강암이는 남다른 적극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원강암이는 부잣집 딸에서 가난한 집의 며느리로, 평범한 신분에서 종의 신분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원강암이가 겪는 신분의 변화는 하강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환경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듭 놓인다. 그 과정에서 원강암

77) (안사인본) “앞니망엔 헛님이여 뒷니망엔 들님이여 양단독지(兩端肩) 금산사별 오송송 백인 듯 혼 아기씨가 솟아나니” 현용준, 앞의 책, 131쪽.

78) 이본마다 아기씨의 이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노가단풍 즈지맹왕 아기씨”로 대표된다. 아기씨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지은 연유가 상세하게 구송된 이용옥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노가’는 ‘녹하(綠下)’에서 음이 변이된 것이고 ‘단풍’은 단풍이 들었을 때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노가단풍’은 아기씨가 태어난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용옥본에서 부모가 자칭(自請)하여 절에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므로 ‘즈치’라 한다고 하였다. ‘즈지’와 ‘즈치’가 형태적으로도 발음상으로도 유사하여 ‘즈지’ 역시 ‘자칭(自請)’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중춘 구송본의 채록자 문무병은 ‘즈지’를 한자로 ‘紫朱’라 표기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이용옥본은 부모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중춘본은 아기씨가 태어난 계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박봉춘본에서는 이름에 “로게단풍테역단풍”으로 ‘단풍’을 강조하기도 한다. 김명윤본을 제외하고는 ‘노가단풍’이 빠지지 않고 있어 아기씨의 이름은 태어난 계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기씨 이름에 ‘즈지’는 태어난 계절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79) 신연우, 앞의 논문, 2009, 13쪽.

이의 주체적인 의견 피력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버지 원진국과 남편 사라도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강암이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자주적 의지의 근간은 바로 원강암이가 가진 선구안 적인 능력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자신의 팔자’에 따른 것이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과 동등하다는 점<sup>80)</sup>을 원강암이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동행하였고 이후 자신을 제인장제 집의 종으로 팔아달라고 청한다. 일련의 과정들에서 원강암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견하는 듯 확신에 찬 모습이다.<sup>81)</sup> 이는 곧 원강암이 스스로가 자신을 고행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일을 예측하는 비범한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제인장제의 집에 자신을 종으로 판 원강암이의 행동은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 외에도 원강암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원강암이는 임신한 상태로, 서천꽃밭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는 것은 원강암이와 사라도령 모두에게 더욱 힘든 고행이 된다. 따라서 원강암이는 남편의 원활한 여정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날 아기의 양육을 위하여 자신이 종이 기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원강암이의 행동은 단순히 도구적 희생이기보다는 자신을 비롯한 사라도령과 할락궁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처한 희생인 것이다.<sup>82)</sup> 따라서 <이공> 원강암이는 자주적인 의지와 모성에 근간을 둔다.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가 보여주는 생명의 탄생과 희생정신은 곧 지모신으로서의 역량이다. 각 서사는 곧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주몽과 유리 2대에 걸쳐 신화소와 일대기가 유사<sup>83)</sup>하다는 점에서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시대를 관통하여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사고는

80) 박봉춘본에서 원강암이가 “죽음과 삶이 맞서지 아니하니 어찌하리요”(원문에서는 모든 낱말이 붙여쓰기 되어 있으나,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보기 위해 눈자가 띄어쓰기로 표기하였다.)라고 말한 뒤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달라 청한다. 이는 곧 서천꽃밭이 죽음으로 가는 길과 동등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260쪽.

81) 조흥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강암이가 자신을 종으로 파는 방법을 사라도령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뒤틀이엔 굴앙 폼네깁?” / “천년장재깃 먼 올레에 강그네, / 앞이망엔 햇님이여 / 뒤틀이망엔 들님이여 / 양독지엔 옥새벨이 / 오송송이 그린듯흔 / 종이나 삼서.” 흥영 / 체얌 ㄱ랑 / 큰뒸애기 나오랑 뵙 / 아니사키엔 흘 거우다. / 두 번 ㄱ랑 / “셋뒸애기도 나오랑 뵙 / 아니사키엔 흘 거우다. / 삼시번 체엔 / 말쫂뒸이 나왕 뵙 / 살거우다.” 그영흥연.” 진성기, 앞의 책, 74쪽.

82) 김혜정, 앞의 논문, 72쪽.

83) 허남춘, 앞의 책, 2013, 46-47쪽.

동일<sup>84)</sup>하다. <주몽신화>에서 유화부인 역시 곡모신으로 관념한다. 고구려의 제의 중에는 유화부인을 위해 10월에 추수한 곡식을 바치는 ‘동맹’을 거행한다. 이는 추수감사제에서 곡신 유화를 돌려보내고 다음 해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까지 곡신을 기다리는 의식이다.<sup>85)</sup> 이는 유리왕의 이야기에서도 확인<sup>86)</sup>된다는 점에서 <이공> 원강암이의 곡모신적인 능력 또한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들의 잉태로 인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는 1차 감금을 경험하고, 이후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2차 감금되고 만다. <초공>에서는 젓부기 삼형제의 출세를 시기한 삼천선비에 의해 깊은 궁에 갇힌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공>은 활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가는 것을 이유로 제인장제가 원강암이를 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후, 2차 감금의 사유가 되는 아들신에 의해 재생된다. 그 과정에서 젓부기 삼형제와 활락궁이 모두 신성공간으로 넘어가 새롭게 존재 변화를 겪은 이후에 그 능력을 어머니의 재생에 발휘한다. 앞서 <초공>·<이공>의 여성신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신성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모두 곡모신으로 통칭할 수 있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주자선생과 결합함으로써 젓부기 삼형제를 잉태한다. 부모의 신성성을 부여받은 젓부기 삼형제는 천상과 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sup>87)</sup> <이공>의 활락궁이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천상과 지상을 연결 짓는 주신(主神)은 곡모신과 천상계의 존재인 태양신의 결합으로 곡식이 자라고 다시 씨앗을 맺게 하는 자연의 원초적인 원리를 상징<sup>88)</sup>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신이자 아들신의 존재를 통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원강

84) 신연우, 앞의 논문, 2009, 24-25쪽.

85) 신연우, 앞의 논문, 2011, 273-275쪽.

86) 신연우는 주몽과 유리의 서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나무 아래 앉아 새를 기다리는 모습이 곧 “곡식의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 또한 봄이 되기 전에 곡신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제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연우, 위의 논문, 2011, 275쪽.

87) 정진희, 앞의 논문, 2015, 192-193쪽. 정진희는 <당금애기>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본고에서는 <당금애기>가 <초공>이 동계의 서사물이기 때문에 참조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는 풍요의 근원이 스님(<초공>에서 주자선생)에게 있다고 보고, 그 풍요를 지상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금애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스님이 가진 절대적인 능력이 곧 ‘풍요’까지 연결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신화에서 ‘풍요’의 관념은 원초적인 생산성에 기반하고 있어 남성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풍요’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가 주장한 입장의 근거와 달리, 여성의 근본적인 생산력에 기반하여 절대적인 천상계의 존재와 결합을 통해 그 복이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88) 신연우, 앞의 논문, 2011, 273쪽.

암이가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쳐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은 생명력의 탄생이라는 원초적인 관점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문화적 관점으로 양분된다. 여기에서 문화적 관점은 <초공>과 <이공>의 주신(主神)인 남성신들이 각각 무속(巫俗)의 신으로, 주요 무구인 꽃을 관장하는 신직을 차지함으로써 문화적 창조, 즉 무속의 시초이다. 또한 원강암이의 사체에서 고리동반이라는 새로운 제의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공>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화적 생산의 기원이 된다.<sup>89)</sup>

<삼공>의 가문장아기는 전상<sup>90)</sup> 차지 신이지만 서사 내에서는 궁극적으로 ‘복’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복이 여자에게 있다는, “여성 풍요의 원리”에 입각한다.<sup>91)</sup> 그 근거는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선그릇” 덕에 산다고 언급함에 따른다. 여기서 “선그릇”은 민간에서 복록의 상징<sup>92)</sup>을 뜻하거나 음부가 지닌 여성성과 생산능력<sup>93)</sup>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이 가진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권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주체적 자아가 성장<sup>94)</sup>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 속에서 스스로 근원적인 여성성을 발현함으로써 신성성을 드러낸다.<sup>95)</sup>

8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인 “2.문화전달자”에서 다룬다.

90) 여기서의 ‘전상’은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마음”(현용준, 앞의 책, 60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부홍망 행불행은 여자의 타고난 복에 달려 있으며 또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운명관이 내재”(현승환, 앞의 논문, 1993, 31-50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전상’은 절대불변의 운명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삼공> 구송 이후 제의 <삼공맞이>에서 <전상풀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풀림>은 여러 사록을 내몰려 좋은 사록을 들이고 악한 사록을 바깥으로 놓린다. 사(邪)와 복록(福祿)의 관계 가운데 사록이 있지만 좋은 사록과 나쁜 사록이 있어, 사록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포함한 양가적 의미(고은영, 「사록의 의미」,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72-74쪽.)를 가진다. 이는 ‘전상’ 또한 좋은 것은 더 불러들이고 악한 것은 내쫓아야만 하는 변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앞서 운명론적 관점에서 ‘전상’은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절대불변의 성질로 드러난다. 하지만 전상을 전생으로 본다면, 풀어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인연을 없애는 것이 인생사에서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다.(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67쪽.) 따라서 현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전상’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전상’이 좋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91) 현승환, 앞의 논문, 1993, 47쪽.

92) “민간에서는 임신선(배꼽선, 세로금)이 뚜렷이 진한 여자가 잘 산다는 속신이 있어 왔다. 마치 손금이나 관상을 자신의 삶과 운명에 연관지었던 것처럼 신체의 고유한 무늬를 가벼이 하지 않고 길조로 여겨온 것이다.”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298쪽.

93) “여인에게 배꼽 아래에서 성기 사이에 그러한 금은 없다. 이것은 분명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치가 배꼽 아랫니고 세로로 그어진 금이란 성기밖에 다른 것은 없다.” 서대석, 앞의 책, 274쪽.

94) 김현수, 앞의 논문, 154-155쪽.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본래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거지들로,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살아왔다. 이후 막내 가문장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재산이 쌓이기 시작하고 넓은 밭과 집을 가진 부자가 된다. 부모는 가문장아기를 만나게 되면서 거지였던 운명이 부자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가문장아기와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본래의 거지 신분으로 돌아간다.

가문장아기와 부모의 갈등으로 시작된 고행은 양쪽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들의 갈등은 결말에 가서 해소되는데,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가 계와시(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됨에 따라 부모가 그곳으로 찾아간다. 가문장아기의 집에서 부모는 가문장아기에 의해 밥을 얻어 먹고 멀었던 눈을 다시 뜰 수 있게 된다. 그곳에서 가문장아기의 재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다. 이를 통해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모가 내세웠던 질서체계에서 자신의 질서로 편입시키게 된다. 즉,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 부모에게 드러냄에 따라 신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sup>96)</sup>

가문장아기의 능력은 막내 마통이에게서도 발현된다.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 하룻밤 유숙을 한 가문장아기는 다음날 아침 마통이 삼형제의 생활터전으로 이동한다. 첫째와 둘째 마통이가 마를 파던 곳에는 똥만 발견되고, 막내 마통이의 자리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뒷날 아죽(翌日朝) 검은장아기가, / “산중(山中) 산앞(山前) 마 파난 디나 구경 갑주.” / 죽은 마통이영 가고 보니, 큰마통이 마 파난 디 누릿누릿 혼 거 잇영 “이거 무스건고” 췌여 보민 똥만 물락물락 췌여지고, 셋마통이 마 파는 디 “이거 무스건고” 허영 보민 주녕이 베염 중싱만 탕천(撐天)호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디 자갈이엔 주워 데껴분 게 봉강 흑(土) 쓸영 보민 금(金)텡이곡 봉강 보민 은(銀)텡이곡 둥글둥글 나아온다. 검은 암췌(黑牝牛)에 시꺼 오니 몰막쉬(牛馬) 나아 간다. 유기전답 나와 간다. 가제 높은 와개집(瓦家) 풍경(風磬) 들고 와라치라 잘 살아간다.<sup>97)</sup>

95) 이유경, 앞의 논문, 2006, 29쪽.

96) 김현수, 앞의 논문, 161쪽.

지모신으로서의 생산력은 곧 풍요를 의미하는데, 전상차지신인 가문장아가 타인에게 복을 내리고 거두는 것을 관장하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특히 가문장아의 주체성이 서사 전개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신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다.<sup>98)</sup> 이는 곧 앞서 부모에게 내세운 ‘선그릇’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그릇’을 주창한 까닭으로 가문장아기는 외부로 축출되지만, 복의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의 가정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부(富)’를 관장하였다면, 더 나아가 계와시(거지) 공동체를 위한 잔치를 베풀으로써 ‘복’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러한 복의 확장은 풍요를 상징한다. 이는 곧 신능의 강화로 공간의 이동을 통한 성장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세 여성신 모두 근원적인 생산성을 기반으로 출산과 복을 관장하는 행위를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낸다. 출산으로 나타날 경우, 아들신이자 주신(主神)에 의해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생명의 탄생이라는 모성의 원리와 더불어 주신이 새로운 문화 주체로 거듭남에 따라 문화 창조적인 관점으로 드러난다. 복을 관장하는 행위로 나타날 경우,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정적인 복의 범위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함에 따라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즉,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생산성은 문화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 즉 복의 개념으로 나뉘어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풍요로운 삶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문화전달자

앞서 세 여성신은 내부에서 외부로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생산성에 기반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음을 밝혔다. 이 밖에도 여성신은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거나 전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비주체적, 주체적으로 양분되어 이동한 공간에서 기존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97) 현용준, 앞의 책, 173쪽.

98) 김현수, 앞의 논문, 160쪽.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은 비주체적인 역할로, <삼공>의 여성신은 주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각 본풀이의 주신(主神) 여부에 따라 주요 역할이 구분된다. <초공>과 <이공>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머니로서 여성신이 문화전달자로서 어떠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초공> 젓부기 삼형제는 문장 실력이 “천하문장”이라 일컬을 만큼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형제가 과거에 낙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는 양반의 딸로서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아기씨를 죽이고자 하고 집에서 쫓아낸다. ‘결혼도 안 한 처녀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회 통념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힘겨운 여정을 겪게 된다. 이처럼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 모자(母子)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하지만 젓부기 삼형제는 그 사회 통념에 한 번 더 거스르게 된다. 과거 시험장에서 연주문을 맞힘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아 취소되었던 과거에 다시 급제하게 되었고, 불도 땅으로 금의환향하게 된 것이다.<sup>99)</sup> 이 일을 계기로 삼천선비는 과거에 급제한 삼형제에 대한 시기심이 거세지고, 결국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를 깊은 궁에 가두고 만다.

삼천선비들은 옥황상제(玉皇上帝)에 등장(等狀)드난,  
 노가단풍즈지멩왕 아기씨 물멩지전대로(水泐紬戰帶) 걸려다가  
 지픈 궁(宮) 아픈 궁, 삼진 삼궁 신임 초궁에 앓단 놓았구나. ... (중략) ...  
 아이구 상전님네 흠도 해엿수다. / 과거엔 혼 건 무시거멍 등당이엔 혼 건 무시  
 거짜. / 상전님은 그지격날 죽언 어젯날은 앞뵈디간 출병해여두언 / 오늘은 금펜  
 지 아상 오람수다. / 요거 봄센해연 금펜질 내여준다 이- / 젓부기 삼형제 금펜  
 지를 보난, / 불쌍한 우리 어멍 / 아방없는 우리들 삼형제 낱아그네 일천고생해  
 연, / 우리덜 삼형제 동녕글 해여네 과거해영 어머니 뵈웁젠 허난  
 과거 호민 무얼 호멍, 등당을 호든 뵈호멍 어느 누게 볼 것고.<sup>100)</sup>

99) 박봉춘·김명윤·양창보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본에서는 연주문을 맞춘 것에 대한 대가로 과거에 급제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젓부기 삼형제의 과거에 대한 보편적인 서사는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보고 본문에도 이와 같이 따른다.

100) 문무병, 앞의 책, 1999, 139쪽.

이 사건을 계기로 삼형제는 자신들이 급제하면서 받게 된 모든 것들을 반환한다. 어머니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주자선생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마침내 부자(父子) 간에 상봉하게 되고 주자선생의 해결책에 따라 삼형제는 무조신이 된다.<sup>101)</sup> <초공>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는 주자선생에 의해 “주년국 땅”에서 “황금산”으로, 그리고 “불도땅”으로 이전해 온다. 그리고 아들 췌부기 삼형제의 과거 합격에 의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궁에 갇히게 된다.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의 공간 이동은 항상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희생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곧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췌부기 삼형제는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아기씨는 비주체적인 역할이자 새로운 문화의 확립이라는 변화의 기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기씨가 깊은 궁에 갇힌 것은 개인에게는 고난의 극치이자 새로운 존재로 승화하는 주요 과정이다. 더 나아가 삼형제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신으로 거듭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삼형제는 “불도땅”에서 아버지 주자선생이 사는 “황금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조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된다. 과거를 준비하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삼형제<sup>102)</sup>는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인 무속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그 근본인 무조신이 된다. 이에 따라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와 췌부기 삼형제의 관계는 통상적인 모자 관계에서 “무조신과 무구를 관리하는 신직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sup>103)</sup>된다.

또한, 아기씨를 구하기 위해 무조신이 되는 과정에서 췌부기 삼형제는 동해바다의 쇠철이 아들을 불러 주요 무구(巫具)를 만든다.<sup>104)</sup> 무구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101) (서순실 본) “서룬 나 아기덜, 서월 상서관 올르난 빛이 좋아져니?” / [음영] 큰아덜은 “베옥상(拜席床)이 좁디덴.” 허난, [소리] “서룬 아기야 / 초감췌상 받아보라. 그거보다 좋아지다. / 셋아덜아 서울 가난 빛이 좋아니?” / “베옥상도 좁디다만은, 어수에 비수에 좋읍디덴.” 허난 / “닐라근 초신맛이 해여 보라. / [음영] 죽은아덜은~ 닌 빛이 좋아니?” “베옥상도 좋곡 어수에 비수에 좋아도, 나는야 [소리]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주테 좋읍디덴.” 허난 / “닐라근 느단 어깨에 신소미 거느리고 웬 어깨에 금제비청 거느리영 / 흥보관디(紅袍冠帶) 조심띠 혈로레비 허튼짓을 / 시왕대를 지퍼근 바라보라. 그거보단 좋아지덴.” 해연 / 궁이 아덜 삼형제~ 초체 올려라 초공 하늘로, 이체 올려라. 이공 하늘로 삼체 올려라. 삼공 하늘에 / 울북 울짙 울리난 …… (후략)” 허남춘 외, 앞의 책, 2015, 121-122쪽.

102) <초공>의 세계관 내에서 과거 합격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점은 구비 전승되어 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이된 화소로 보인다. 당대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서사는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오는데, 조선시대에 위 화소가 굳어져 현재까지 전승된 것으로 생각한다.

103) 이향애, 『제주 무속 신화 속 췌겨난 딸들의 신직 좌정과 문화적 의미』, 『기호학 연구』 64, 한국기호학회, 2020b, 76쪽.

철기의 사용이 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무속의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명이 도래하였음을 암시한다.<sup>105)</sup> <초공>의 서사가 형성되던 시기가 무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무렵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공> 할락궁이는 자신의 친부 확인을 위하여 어머니 원강암이의 손을 뜨거운 솥 위에 올리는 고통을 가한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할락궁이는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이후, 사라도령과 상봉하게 되지만 원강암이의 죽음을 알게 된다. 원강암이를 되살리기 위해 아버지 사라도령으로부터 서천꽃밭의 꽃을 받고 다시 제인장제의 집으로 간다.

아이고 설운 어머니 죽었구나. / 열두 뼈(骨) 즈근즈근 놓아 놓안  
 사름 생길 꽃~, 번성혈 꽃 / 차례(次例)대로 놓안 맹천(明天) ㄹ똥 하늘님전 출  
 원(祝願)허길 / “하늘님아~ 하늘님아 지에(地下)님아  
 어찌 자식이 부모님안티 매를 놓네까? 우리 어머니 살리젠, 허염시메, 이내 몸  
 용서(容恕)를 빌엄수다.” / 축원을 허여두언 / 속양낭 막대기로 연세번 착착 후  
 리난, 어머니와 와들랭이 일어나았구나-.<sup>106)</sup>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꽃을 사용하여 제인장제와 그 일족들을 모두 정치하고 죽은 원강암이를 살려낸다. 꽃의 능력은 생과 사의 영역을 넘나든다. 무속의 제의에서 꽃은 주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무화(巫花)로, 굿에서 신(神)들과 관련된 꽃으로 인식 및 신성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神花)”로 일컫기도 한다.<sup>107)</sup> <이공>에서 할락궁이가 사용하는 꽃은 인간 생명의 본원적인 공간인 서천꽃밭에 기인<sup>108)</sup>하고 있기 때문에, 각 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생명을 기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9)</sup> 정치 및 재생의 과정에서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의

104) (안사인 본) “동이와당 췌처리 아들 불러단 계상잔 계천문 천양낙화 백몰래(白沙)로 본매 놓아 일월삼명두를 지어 연당 우으로 우올리고 일월(日月)이 희론호는 시왕대반지를 마련허연 양반의 원술(怨讐) 가프젠 삼시왕(三十王)으로 올라간다.” 현용준, 앞의 책, 121쪽.

105) 허남춘, 앞의 책, 2012, 68쪽.

10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85쪽.

107)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409쪽.

108) 이수자, 위의 논문, 426쪽.

109) 큰굿 열두본풀이 중 <이공>보다 앞서 구송되는 <할망본풀이>에서 생명의 기원이 강조된다.

꽃들을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관장하는 자로서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제의적 측면에서 꽃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의에서 꽃은 심방이 신을 굿판으로 청할 때 사용한다. 앞서 하늘과 땅의 존재가 결합에 따라 탄생한 자가 천상과 지상을 넘나든다고 하였다. 할락궁이는 원강암이의 죽음을 기점으로 꽃을 자유자재로 발휘함에 따라 주화 관장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sup>110)</sup>

“우리 어멍 나 잇어부난 얼마나 취조를 받아신고? / 아이고 이제랑 법지법(法之法)이나 마련헤여 보저.”. 그 법으로  
 어머님 누어난 자리에 / 반죽허연 동글동글 멘드는 게, 일곱 방울을 멘들앗구나,  
 그냥 스가칩(私家-)이 죽은곳엔 일곱 방울 / 스당클(四祭棚) 멘 곳엔 가민, 방울  
 방울 열너(十四) 방울 심방칩인 안팎으로 스물네 방울 헤영, 병거떡 허고  
 …(중략)… 쥘 우인 돛박낭에 간, 목 매연 죽여부러젠 헤영, 원래가~, 고리동반  
 에는, 돛박낭허영 쥘 우인 쥘르는 법이웨다에-.<sup>111)</sup>

사라도령은 원강암이를 살려낸 후, 죽었던 자리의 흙을 모아 고리동반을 만든다. 고리동반은 <이공>의 구송 이후 ‘이공맞이’ 제차 가운데 ‘이공질침’에서 사용된다. 이 또한 제의적 측면에서 원강암이의 서사를 통해 그 근원임을 밝힌다. ‘이공질침’은 이공신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내는 과정이다. 이때 심방이 고리동반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렸다가 귀 등 신체 곳곳에 가져다 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것을 ‘전상’이라고 한다. 그 고통은 ‘전상’을 내쫓음으로써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고리동반은 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전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에 고통을 준 악한 ‘전상’을 모두 내쫓고 그 고리동반을 당클 위에 올린다. 원강암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고리동반이 ‘정화’라는 의미로 제의에 쓰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통하여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110) 다양한 꽃의 효능을 이용하여 확인해보는 작업은 할락궁이가 꽃감관으로서 자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사식 과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강진욱, 「‘꽃의 신화학’ 서설 :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55,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8쪽.) 하지만, 할락궁이의 신직이 이본에 따라 꽃감관으로 좌정되기도, 악심차사로, 많은 경우 신직을 부여받지 않은 것도 있어 입사식 과제로 단정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11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85-186쪽.

인다는 점을 주목<sup>112)</sup>해야 한다. 원강암이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삶은 제인 장제에 의해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을 할락궁이는 정치로, 원강암이는 죽음을 통해 이제까지 감내하였던 악한 ‘전상’들을 ‘정화’하고 서천꽃밭의 아이들을 포용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선그릇” 덕에 산다고 부모에게 말한 까닭으로 집에서 축출되어 마통이 삼형제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다. 마를 주식(主食)으로 삼는 마통이 삼형제에게 가문장아기는 쌀밥을 지어 보답한다.

가문장아긴 츄나룩쫄 잘 일어두고 솥을 벌언 밥을 흐고,  
“문전(門前) 모른 공스 시명 주인(主人) 모른 나그네 있소리카.”  
밥을 거러 상(床) 출러아진 할망 하르방신디 들러가니,  
“하르방 데(祖父代)에도 아니 먹어난 거여.” 흐명 아니 먹으니, 큰마통이안티 들러가니, / “조상 데(祖上代)에도 아니 먹어난 거. 이런 버렁이밥 아니 먹키여.”  
꽃죽 ㄱ뜨 용심만 내니, 죽은 마통이안티 밥상을 들러가난 서로 성통명(姓通名) 흐고 순작만썩 빙에기만썩 무룩무룩 거러 먹나.<sup>113)</sup>

마통이 삼형제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마를 먹어 술뚜경에도 “마빈명이”가 가득하다. 그래서 쌀밥을 괴이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막내 마통이가 처음 먹는 쌀밥을 조금씩 먹어가니 다른 형제들도 따라 먹기 시작한다. 다른 형제들도 거부감에서 점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식(主食) 문화의 변화를 암시한다. 마통이 삼형제의 주식이 ‘마’라는 점에서 구근문화임이 확인된다. 그들의 생활에 가문장아기가 “금백미”를 가지고 와 밥을 지어줌으로써 쌀 문화를 전파한다. 이는 <삼성신화>에서 벽랑국 세 여신이 탐라국에 농경문화를 전파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즉, 수렵 채취를 하며 살던 마통이 삼형제의 터전에 그보다 상위 문명권의 문화에서 온 가문장아기가 곡식(쌀) 문화를 전하는 것이다.<sup>114)</sup> 낯선 문화의 충격은 곧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어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가문장아기가 마통이 삼형제와 함께 마

112)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87쪽.

113) 현용준, 앞의 책, 172-173쪽.

114) 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72-173쪽.

를 파는 곳으로 가서 막내 마통이에게 금의 가치를 알려준다.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가문장아기와 막내 마통이는 연을 맺는다. 이후, 가문장아기는 몸단장을 시켜주자 “절세미남”이 된다. 이본에 따라서는 첫째·둘째 마통이가 막내 마통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가문장아기와의 결연으로 막내 마통이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15)</sup> 가문장아기는 마통이의 생활터전에 방문하여 금과 은덩이라는 재산의 형태로 복을 부여한다. 금의 가치를 몰랐던 마통이는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고 말지만, 가문장아기를 통해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sup>116)</sup> 앞서 가문장아기와 마통이 삼형제와 엮인 사건들을 통해서 가문장아기가 문명사에서 한층 발전된 단계의 문명을 가진 집단<sup>117)</sup>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상위 문명을 전파함으로써 막내 마통이의 시야를 확장시킨다.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가문장아기와 결연할 기회는 총 3회에 걸쳐 나타난다. 하지만 구성원 중에 긍정적인 회답을 하는 자는 막내 마통이 뿐이다. 가문장아기의 제안이 거둬질수록 단계별로 문명 혜택을 받는다. 음식에서 의복, 더 나아가 현물의 가치를 깨닫고 넓은 밭과 청기와집을 소유한 거부(巨富)가 된다. 신문명을 받아들임에 따라 막내 마통이는 기존의 의식주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몸소 느낀다. 또한, 문명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은 외부 공간에서 넘어온 이방인인 가문장아기가 막내 마통이를 남편으로 선택해 부자가 되면서 마통이가 사는 공간의 가치를 이분화시킨다. 즉, “가문장아기 자신을 중심으로 부(富)와 빈(貧)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여 중심/주변의 위계”<sup>118)</sup>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래 있던 공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 가치를 외부로 넘어와 문명을 전승하면서 외부자의 신분을 뛰어넘는다. 가문장아기는 주체자로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성장시키고<sup>119)</sup> 새로운 문명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15) 막내 마통이의 옷차림은 이본마다 그 묘사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딴 신선님이우겐”(김계림본), “어디레 가는 선비님이우짜?”(양창보본)라고 마통이 형들이 말할 만큼 낮은 차림새이다. “우리도 저런 각시나 어딴 사라보앗스면”(박봉춘본)하고 변한 막내 마통이의 모습을 부러워한다. 가문장아기와 막내 마통이의 결연과 이후 의복의 변화를 통해 가문장아기의 신성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수렵 채취를 하며 살던 마통이가 “신선”, “선비”와 같은 행색을 한다는 점은 신분 사회가 형성되는 상위 문명이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16) 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75-176쪽.

117) 서대석, 앞의 책, 272쪽.

118) 이향애, 앞의 논문, 77-78쪽.

### 3. 인세 화합 신

<초공>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는 이본에 따라 이승신으로서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신당을 지키는 신으로 좌정한다.<sup>120)</sup> 신당을 지키는 신이 될 경우, 그 위치에 고정적이지 않고 인간인 유정승 따님애기를 만나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納)”을 물려준다. 심방이 되는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있는 양창보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멩지 전대로 걸려다가, 상촉권상호여 부정(不淨) 서정 신개여 두고,  
늦가막쇠 은저울로 백근장대 준준(津津)이 채와간다. / 약밥약술(藥飯藥酒) 맥연  
인간더레 도환승(還生) 시기며, / 예인(御印) 마칩테다. 타인(打印) 마칩테다. /  
수레감봉 막음 주어간다. 무당서(巫堂書)를 내여주멍 / 이거 아사근 서강베포땅  
에 다시 느려가그네, / 신전집을 좇아근 이거 다 통달(通達)호곡, / 삼천기덕(三  
千器德) 일만제기(一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 멩두멩철(明刀明鐵)라근,  
삼하늘에 받아그네 너사무 삼형제 거느리영 곳 강호랜 호난, / 번뜩 깨어나난,  
서강베포땅에 그대로 업대헤었구나. <sup>121)</sup>

일곱 살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눈이 멀고 보이기를 반복한 유정승 따님애기는 전상을 그려쳐 심방이 된다. 그 과정에서 부잣집 외동딸을 살려내고자 노가단풍 즈지멩왕아기씨가 가지고 있던 무구를 물려받는다. 무제(巫祭)를 통해 외동딸을 살려냄으로써 심방의 자질을 인정받고, 최초의 심방으로 거듭난다. 심방은 천계(天界)와 인계(人界)를 잇는 중간자로서, 삼시왕인 셋부기 삼형제와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해준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심방은 삼시왕의 승낙 하에 형성되었다. 즉, 신이

119)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429쪽.

120) 아기씨 서사의 결말은 이본마다 천차만별이다. 박봉춘본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어궁도복차지 로사’로 좌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김명운본·김병효본·양창보본은 (금법)당 혹은 삼천전제석궁 어궁또에 좌정하는 것으로, 이용옥본은 삼시왕이 된 삼형제가 그리울 때 새별을 보기 위해 상다락에 오르는 것으로, 서순실본은 이승신에 좌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고대중본에서는 아기씨를 구하고 부활하는 내용 모두 생략된다.

121) 문무병, 앞의 책, 1999, 147-148쪽.

인간의 바람을 들어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무구는 굶을 때 쓰이는 신성한 도구이다. 이를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가 소지하고 있다가 심방에게 전해줌으로써 신성성을 함께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인간의 몸이기에 신과 동격일 수는 없으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다. 따라서 심방은 신과 인간의 소통을 매개함으로써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공> 원강암이는 열다섯이 되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저승어명으로 좌정한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에 도착해 처음 목격한 것은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어린 때에도 부제칩이 탄생허영, 부제칩이는 은그릇 놋그릇에, 어느, 밥 먹던 아기덜은 보민, 물 잉영 가는 거 보민, 놋그릇에~, 서천꽃밭디 물 주젠  
오랑 물 질영 머리에 이영 가고 어린 때에 부모덜 못 사는 부모에 탄생헌 아기덜은, 함박에나 남박에나 / 밥 먹고 사기(沙器) 그릇 밥 먹던 아기덜  
남박 함박 그릇에나 사기 그릇 물 잉영 가다근 / 마이정당 췌정당에 강 발 걸령 넘어지민 / 은그릇 놋그릇이사 물만 솟아지영 아니 벌러지민 다시 강, 그 물을 떠당 주민 웨주마는~, 남박새기나 사기그릇 밥 먹던 아기덜은, 그거 벌러지어불민 / 물 거려당 서천꽃밭 못 주민-, 황세권관 도세권관  
검뉴울꽃 웨염젠 허여근, 아랫저고리 건어 세왕 / 속악낭 막맹이 들러근, 혼 번 두 번 연식번, 우로 떠러가민 / 인간더레 돌아 앓아에-122)

15세를 전후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은 서천꽃밭의 꽃들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살아온 세월이 짧아 지옥 대신 서천꽃밭으로 가게 된다. 이곳에서 태어난 집안의 형편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승의 삶에서 밥을 먹던 그릇이 곧 서천꽃밭의 물그릇이 된다. 가난하게 살던 아이는 밥그릇도 부실해 물이 모두 새어 꽃밭에 물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크게 혼이 난다. 이에 아이들은 자신의 명이 짧음을 한탄하며 운다. 생을 다하지 못한 죽음은 그 자체로도 슬프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도 차별을 받는 모습은 운명의

122)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81-182쪽.

비극성을 더욱 강화시킨다.<sup>123)</sup> 서천꽃밭 아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생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공>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sup>124)</sup>

서천꽃밭 아이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목격한 할락궁이는 자신의 어머니 원강아미를 저승어명으로 좌정시킨다. 할락궁이가 저승어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자신 또한 종이라는 낮은 위치에서 불공평한 일들을 여럿 겪었기 때문이었다. 제인장제에 의해 원강아미와 할락궁이는 모진 벌역을 수행한다. 할락궁이가 견디다 못해 원강아미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까닭은 제인장제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할락궁이는 이해하지 못할 벌역(罰役)을 감내하며 신분적인 한계와 절망을 마주했던 것이다. 이후 저승어명이라는 신직을 통해 자신들과 같이 소외된 아이들을 포용하고 이승과 다른 세상을 서천꽃밭에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그 자리에 원강아미를 좌정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로서 역할의 확장을, 이면에는 경제적·신분적 차별을 넘어 균등하게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서천꽃밭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모습은 저승어명이 존재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과 인내를 가진 원강아미 덕에 서천꽃밭은 이전보다 평화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함에 따라 집에서 축출되게 된다. 가문장아기 주체성의 근원은 “선그릇”에서 나온다. 자신이 누리고 사는 덕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덕이 가장 으뜸이라고 말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부모가 누리던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가문장아기 자체가 복을 부여하고 앗아가는 주체로서 신성한 능력을 지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문장아기가 가진 능력은 자신의 가치

123) 이와 달리, 양장보 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히려 가난한 아이가 번성꽃을 피워 이승에서의 모습과 전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에 사기그릇에 밥 먹던 아기털 물을 땀 가당 사랑치기에 발 걸렁 푸더정 사기그릇 벌러지민 팔베레 돌아 앗앙 비세ㄴ찌 우는 아기 / 늦그릇에 밥 먹던 아기털은, 물을 뜨당 손짬 놓앙 물레레 굴라 앗아 불민, 물주지 못 허영 뿔망꽃 웨면 앗앙 비세ㄴ찌 우는 아기 / [말] 경 허난 남그릇에 남박에 족박에 먹던 아기털은, 죽영 강 물을 땀 강 꽃밭에 주민 번성꽃 웨민 손바닥 심영 웃임을 웃영, [소리] 허는 아기 / [말] 하도 우는 아기털 보난, 어이도 엇고 [소리] 침도 엇언~”(허남춘 외, 앞의 책, 2010, 148-149쪽.) 가난하게 살던 아이들이 서천꽃밭에서는 잘 지내는 것으로 이승에서 받던 차별을 보상받는 양상으로 다루어진다. 이본에서는 어린 나이에 맞이한 죽음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여 집안 형편보다는 생(生)의 소중함과 사(死)의 비극을 부각시킨다.

124) <이공>보다 앞서 구송되는 <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의 내력담으로서, 아이들의 탄생을 관장한다. <할망본풀이>를 기반으로 불도맞이 제의를 행하는데, 이는 아기의 무사 출생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에 이어 <이공>에서 위 본문의 인용문과 같이 명(命)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를 인정해주는 여하에 따라 복을 주고 빼앗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문장아기 자신의 내부에만 한정적으로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문장아기가 ‘비조리 초막’에서 마통이 삼형제의 상반되는 태도를 경험함으로써 행동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가문장아기와 마통이 형들은 자신의 자주적인 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타인보다 자신이 먼저라는 사고를 가진다. 여기서 배려와 이해라는 이타적인 태도가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진 몰라도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다. 이타성이 결여된 태도는 오히려 타인에게서 배척될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놓이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자신과 다른 모습의 막내 마통이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 그 세상은 나눔의 미덕을 기반으로 타인과 공존하는 공간이다.

막내 마통이로부터 깨닫게 된 이타적인 사고방식은 가문장아기가 가진 복의 능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적·능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복은 개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커지기도 한다. 복을 실행함에 있어 타고난 것만큼 복을 갖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것이다.<sup>125)</sup> 막내 마통이는 가문장아기와 혼인을 하고 가문장아기가 부여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sup>126)</sup> 두 사람이 이룩한 복은 가문장아기와 막내 마통이 집안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인 계와시(거지)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다. 계와시들을 위한 백일 잔치를 진행함에 따라 조건 없는 베품을 나누게 된다. 넉넉한 살림이기에 단순히 부모를 찾고자 하였다면 아마 더 신속정확한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 백

125) 정제호,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쫓겨남’의 의미와 신화적 성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49쪽.

126) 정제호는 가문장아기가 온전히 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인 막내 마통이 덕이라고 보았다. “여성의 몸으로 그 모든 복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복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문장아기가 성장하면서 그 복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남편과의 만남, 즉 남성과의 결합을 강조하며 가부장제 속 여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정제호,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의 역설적 복과 주체성」, 『한국무속학』 44, 한국무속학회, 2022, 253-256쪽.) 그러나 가부장제 하에 막내 마통이의 태도가 가문장아기에 비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점([가문장아기: 제안-죽은마통이: 승낙]이라는 일방적인 형태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문장아기가 부모와 함께 지냈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상 미비했다는 점은 가문장아기를 수동적인 인물로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일 동안 잔치를 열어 베풀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키우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 빚을 대신 갚음과 동시에 보답하려는 이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당초 가난했던  
부모가 딸 셋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도  
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변인들의 공덕을 받은 가문장아가 마을 사람  
들에게 은혜를 보답함으로써 공동체의 배려와 공존의 이치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빈부 격차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과거에는 마  
울 사람들 스스로가 감당하며 거지를 거둬 먹었다. <삼공>의 계와시 백일 잔치  
는 가난에서 탈피한 자가 다시 거지를 위한 연회를 열어 배고픔을 해소시킨 가  
난 구제의 공덕을 강조<sup>127)</sup>한다.

따라서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독자적인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배려와 나눔의  
미덕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복은 혼자 지녀서 얻는 가치보다  
타인과 공유할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공  
존 의식은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민중의 소중한 의식이다. 이에 대한 의의  
를 본풀이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전상’의 의미 또한 되돌아보게 한다. 곧 ‘전상’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공존과 배려가 있는 것이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들은 가족과의 재회 및 신으로 좌정하게 되면  
서 끝을 맺는다. 이들 서사의 핵심은 신으로서의 직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  
회적, 즉 관계적인 측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여성신을 통해 설파한다. 이 점에서 제주 신앙민  
들의 주요 가치를 알 수 있다.

---

127) 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81-182쪽.

[표4]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고난·극복과정

뿌리	여성신	고난의 정점	해결과정 및 결과		
			배움	신으로 좌정	
				子	母
신	노가단풍 즈지멧왕 아기씨	깊은 궁에 간힘	무조법, 무구 마련	젯부기 삼형제는 무조신이 됨	무구, 제기를 지킴 → 최초의 심방에게 전달
꽃	원강암이	죽음	꽃 활용법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됨	죽었던 자리의 흙으로 고리 동반을 만듬(기원), 저승어명으로 좌정
전상	가문장아기	마통이 형들에게 곤욕을 당함	나눔의 덕을 배움	가정→외부 복의 범위 확장	

여성신이 차지하는 신직은 각 본풀이의 주요 신직과 관계가 깊다. <초공>·<이공>·<삼공>의 각각 무조신과 주화(呪花)차지신, 그리고 전상신의 내력담이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멧왕아기씨는 무조법과 관련하여 신을 인세(人世)로 부르기 위한 무구와 제기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인 심방에게 전한다. <이공> 원강암이는 주화(呪花)의 근원이 되는 서천꽃밭에서 꽃을 관리하는 아이들을 보살핀다. 제의로서는 고리동반을 마련하는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무조법과 관계가 있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주신이자 여성신으로서 전상을 관장한다. 이 전상은 신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점과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좋고 나쁘게 풀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세 여성신은 모두 인간 세상의 화합을 기반으로 무속적 근원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공>·<이공>의 여성신은 주신의 신직과 깊게 얽혀 실제 제의와 관련하여 그 근원의 서사를 간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여성신의 서사는 신성한 존재로서 주신과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본풀이 여성신의 위와 같은 특징들을 토대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V. <초공·이공·삼공본풀이> 여성신의 의미

##### 1. ‘공’의 의미

<초공>·<이공>·<삼공> ‘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까지 ‘공’의 의미를 ‘궁(宮)’ 혹은 ‘공(公)’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어 관련 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궁(宮)’으로 보는 견해는 현용준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러 이본에서 ‘-궁’과 ‘-궁’을 혼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궁’을 ‘-궁’의 원음으로 보았다. 이때, ‘-궁’은 ‘-宮’으로서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28)</sup> ‘공(公)’으로 보는 견해는 이수자의 의견을 빌려 살펴보고자 한다. 현세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신이 초공신이기 때문에 “처음 ‘초(初)’에 작위 중 으뜸을 나타내는 ‘공(公)’자를 붙여 신의 이름을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뒤에 이어지는 <이공>과 <삼공>은 큰곳집 단이 삼(三)을 중시했기 때문에 삼공신까지만 뒤에 ‘공(公)’을 붙이고 이어지는 시왕맞이에서부터 다른 차원의 신으로 인식하여 신명(神名)을 다르게 붙인 것이라는 관점이다.<sup>129)</sup>

부차적인 의견으로 강정식은 현용준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세 본풀이가 유기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굿판에서 중요한 당클인 전제석궁과 시왕당클을 가르켜 ‘양궁’이라 하는데, 이때의 ‘-궁’은 신의 세계를 의미한다. 전제석궁이 <초공>·<이공>·<삼공> 등 상위의 신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본풀이는 “특정한 개별신이 아니라 한 무리의 신을 함께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보인다.<sup>130)</sup> 논자는 <초공>·<이공>·<삼공>의 여성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세 본풀이 간의 연계성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강정식의 의견이 본고에서 ‘공’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128)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42-44쪽.

129) 이수자, 앞의 책, 325쪽.

130)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158쪽.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주장을 따르고자 한다.

‘공’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초공>·<이공>·<삼공> 신직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세 본풀이는 각각 무조법, 주화(呪花), 전상의 근원으로서 “뿌리”가 된다. 이에 따라 각 본풀이를 “신불회, 꽃불회, 노불회<sup>131)</sup>”라고 칭한다. 각 “뿌리”의 기원은 주신(主神)의 서사와 관계가 깊은데, 본풀이를 통하여 증명한다.

<초공>은 무조신의 내력담과 더불어 무조법, 무구 등의 기원을 이야기한다. 이때, 무조법과 무구는 셋부기 삼형제가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모두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셋부기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제법 설립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를 구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춰 진행이 된다. 위 과정들을 통해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당에 좌정하여 무구를 지키고, 그 무구를 최초의 심방인 유정승따님애기에게 전달한다. 앞서 셋부기 삼형제는 천상과 지상 세계의 결합체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셋부기 삼형제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생산성과 복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게 된다. 후자는 어머니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의 근원적인 생명력에 기반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속은 인간에게 복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공>의 의의는 서천꽃밭의 장소적 의미와 더불어 꽃 번성을 통해 자손 번성을 기원하는 본풀이라는 것이다. 무속에서의 꽃은 “신이 하강하는 우주의 축”이자 신이 강림하는 신성한 영역으로 “우주목, 세계축의 상징성”<sup>132)</sup>을 갖는다. 제의에서 쓰일 때는 신에게 바치는 공화(供花)와 헌화, 그리고 “풍요를 바라는 생산력의 상징적 의미”<sup>133)</sup>를 동시에 내포한다. 즉, 주화(呪花)가 포용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이 모두 복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죽음과 환생의 문제를 식물체계의 가

131) <삼공>은 ‘전상드리’ 혹은 ‘노불회’라고도 불린다. ‘노’의 의미는 ‘전상’과 더불어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강정식은 ‘뜻밖에 얻은 재물이나 행운’(강정식, 위의 책, 171쪽.)으로, 허남춘은 ‘삭(索)’의 우리말 훈이 ‘노’ 혹은 ‘동아줄’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인연의 상징으로 노끈(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69쪽.)이라고 보았다. 논자는 앞장에서 <삼공>의 가문장아가기가 복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막내 마통이의 이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존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불회’의 ‘노’는 의미상 ‘인연’과 관계 깊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2) 윤정원, 「하늘·우주목의 상징성을 지닌 꽃의 현대적 변용」, 『미술문화연구』 11, 동서미술문화학회, 2017, 36쪽

133) 위의 논문, 37쪽.

장 근원적인 성질을 가진 꽃에 빗대었다는 점에서 생명력 본원의 상징물로 중요성을 가진다.<sup>134)</sup> <이공>에서 꽃의 생명성은 할락궁이가 원강암이를 되살릴 때 그 의의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공신이 주화(呪花) 차지의 신으로서, 주화(呪花)가 복과 포용의 원리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삼공>은 모든 구송본에서 삼공신이 전상신임을 주지하고, 전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미’<sup>135)</sup>에 언급한다.<sup>136)</sup> 그 정의에 대하여 직업적, 행동적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전상의 의미를 설명한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양태는 전상에 의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전상의 좋고 나쁨은 신에 의해 주어진다. <삼공>의 주신(主神)인 가른장아기는 복을 관장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 능력은 복을 부여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인지 이타적인지에 따라 달려 있다. <삼공>에서 가른장아기와 부모의 관계에서 갈등 및 회복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은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당신으로서 무구를 보관하고 심방의 시조인 유정승 따님애기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공>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의 저승어명으로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을 보살핀다. <삼공> 가른장아기는 전상신으로서 복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와의 공존의 원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무속의 주요 요소가 된다. 본풀이 안에서 주신과 여성신의 관계 양상은 결과적으로 신성함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력담에 담긴 주요 원리와도 관계가 깊다. 즉, <초공>·<이공>·<삼공>은 무속의 핵심 요소의 “뿌리”로서 그 근원을 다루는 것이다.<sup>137)</sup>

134) 이영희, 「화소분석을 통한 이공본풀이 연구 - 안락국태자경, 안락국전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1쪽.

135) ‘말미’란 “본격적인 의례에 앞서 굿을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로 풀어내는 제차”를 의미한다. 강정식, 앞의 책, 63쪽.

136) “우리 인간~ 백성덜, 살아가는데, 모든 게, 전상전, 아니면, 어떻 살명 모든 게 다~ 전상연드 리, 아님네까. / 글 허기도~ 전상, 활 허기, 전상 입곡 / 공부허영~ 학생으로, 대학 가젠, 교수 생활허게 / 전상, 박사(博士) 웨기 전상 / 원장(院長) 웨는 것도 전상, 심방질 허는 것도 전상, 농사허는 것도 전상이요 배타는 거 전상 / 차 운전, 허기도, 전상 입곡 / 요즘~ 나쁜 므음 먹 영, 강적질(強賊-), 수적질(水賊-) 도둑질허는 것도 전상 경 허난, 전과 멧 범(犯)씩, 웨는 일, 아 닌네까. (후략)”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2009, 190-191쪽.

137) 세 본풀이는 큰굿 열두본풀이에서 구송되는데, 이 외 본풀이들이 무속의 근원이 아니고 부차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반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열두본풀이의 순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두본풀이를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은 무속의 근원적 속성의 집합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때의 ‘공’은 선행연구의 입장과 같이 ‘궁(宮)’의 원음으로, 제의적인 측면과 한자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들을 모두 무속의 근원이라는 한 범주를 지칭한다. 이때, ‘공’의 앞에 순서를 뜻하는 ‘초’, ‘이’, ‘삼’이 붙은 것은 무속의 근원으로서 그 중요도가 무조신-주화-전상 순으로 ‘공(悤)’을 드러야 하기 위함인 것이다.

## 2. 문학적 의의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은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혹은 남다른 적극성을 가진 여성으로 양분된다.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은 모두 어머니이면서도 상황을 대처할 때 수동적<sup>138)</sup>,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공>과 <삼공>은 남다른 적극성과 능동적인 태도가 공통되지만, <삼공> 가문장아기의 절대적인 능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모두 근원적인 생명력을 기반으로 여성신이 된다는 점을 통해 여성신의 원형적인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초공>·<이공>의 여성신을 돕는 조력자와 <삼공> 가문장아기의 ‘복’과 관련된 능력을 통해 생산과 복력의 원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삼공>을 제외하고는 <초공>과 <이공>에서 여성신의 능력이 다소 미

찬자왕	할망	초공	이공	삼공	차사	사만이	지장	세경	문전	칠성	본향&조상
친지 창조	출생	무조 신	꽃	전상	죽음	수명	액 막이	농경	가옥	풍농	마을&일족 수호

<초공>·<이공>·<삼공>은 큰곳에서만 구송되는 본풀이이다. 세 본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본풀이는 작은곳에서도 구송되고 있다. 작은곳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성에 걸맞은 본풀이를 채택하여 구송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큰곳은 곳의 목적에 필요한 모든 의례를 종합하여 행하는 제의이다. 그 규모가 커 하루에 끝나지 못하고 길게는 14일 동안 진행된다. 심방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곳으로서 신에게 역가(役價)를 바쳐야만 한다. 따라서 큰곳은 제주 곳의 총체적인 역할이자 무속신에 대한 주요 의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곳에 <초공>·<이공>·<삼공>이 구송된다는 것은 열두본풀이 중 세 본풀이가 가장 무속의 근원과 근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공>·<이공>·<삼공>을 무속의 근원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138) 신연우는 노가단풍 지지맹왕아기씨가 보여주는 행동에 다하여 “수동적 태도”라고 칭하였는데, 이 의미는 “현실에 대한 무기력 또는 무능함”으로 보지 않는다.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세계 앞에서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연우, 앞의 논문, 2010b, 245-246쪽.

비하게 드러난다. 이를 이유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동적인 역할로만 여성신을 규정지었다. <삼공>과 <초공>·<이공> 주신(主神)과 비교하여 그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희생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바라본 것이다. 따라서 주신(主神)의 신직 좌정을 위해 여성은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념해 왔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주신(主神)으로서 남다른 능력의 여성신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의 원형적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초공>·<이공> 여성신을 어머니라는 주된 역할 속에서 그 모성성을 먼저 확인하고 <삼공> 가문장아기와 함께 논하도록 한다.

<초공>·<이공> 여성신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식 양육이다. 양육은 여성의 모성을 상징하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육체적 변화 및 고통 이후에 형성되어 직접적인 경험으로 발현된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삼형제를 잉태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공> 원강암이는 할락궁이를 잉태함에 따라 사라도령과 함께 서천꽃밭으로 가지 못하고 제인장제의 집에서 벌역(罰役)을 수행하게 된다. 모두 자녀를 잉태함에 따른 결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지만,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히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는 자신의 근원이자 모태의 실현체로, 그에 따른 보호와 자애의 발현은 모성에 따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한정지어 여성신을 가족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로 규정짓는다. ‘모성’이 여성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하여 자식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sup>140)</sup>이다. 여성신이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그 모습이 <초공>·<이공> 여성신의 서사의 주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이공> 원강암이가 출생부터 고난·극복과정을 통하여 신으로 좌정하는 전개로 이어진다. 즉, 양육은 여성신이 신으로 거듭나는 통과 의례 중 하나일 뿐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중세에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덧씌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가문의 혈통을 계승할 아들을

139) 최원오,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탐론 :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93-197쪽.

140) 장영란, 「한국 신화 속의 여성의 주체의식과 모성 신화의 전복적 기제」, 『한국여성철학』 8, 한국여성철학회, 2007, 158-162쪽.

출산 및 양육에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 가치를 여성들이 내면화하여 살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화하게 되는데, 미혼의 여성에겐 ‘순결’을, 기혼의 여성에겐 ‘정숙’을 요구하는 것이다.<sup>141)</sup> 이에 따라 어머니로서 여성신을 관념할 때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도리를 앞세우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초공>·<이공> 주신(主神)과 여성신은 모자(母子) 관계를 넘어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얽힌다. 여성신은 보호자로서 주신을 성년이 될 때까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 주신은 어머니의 죽음 혹은 죽음으로 윤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성한 능력을 획득하고 구출해낸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를 서로 조력자가 되어 보완·해결해줌으로써 이들은 함께 신으로, 혹은 신성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신은 신으로의 좌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물이자 본풀이 서사의 또 다른 주체인 것이다.

<삼공>의 가문장아기는 <초공>·<이공>의 여성신과 비교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강하다. 유교 사회의 가부장제 이념으로부터 요구되는 여성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사고와 경험에 바탕을 두어 행동한다. 본풀이 서사에서 주요 전개 요소는 복을 관장하는 주체인 가문장아기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특히, 부모가 가문장아기에 의해 복이 ‘부여-소멸-부여’되는 과정의 순환을 통해서 이 또한 생산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산의 풍요로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곧 복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신은 “생산성과 창조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sup>142)</sup>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성신이 외부로 나오게 된 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공>과 <삼공> 여성신은 기존 사회체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공>은 남성 인물보다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된다. 외부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남성의 도움과 협조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삶을 수용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신념을 보여준다.<sup>143)</sup> 그 신념은 궁극적으로 세 본풀이에서 여성신은 남성 중심의 질서에 종속

141) 장영란, 위의 논문, 150쪽.

142) 이유경, 앞의 논문, 2006, 82-83쪽.

143) 하경숙,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징」, 『온지논총』 48, 온지학회, 2016, 78쪽.

되지 않고, 여성의 포용력으로 공동체를 완성함으로써 세계를 인식하려는 무속 세계관이 반영<sup>144)</sup>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신의 원형은 포용의 원리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이미지가 각기 다르게 구현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본풀이에 혼재되어 반영됨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은 결과적으로 신으로 좌정함에 있어 그 신직이 인간 세상의 화합과 관계가 깊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다. 각 본풀이에서 여성신의 신능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심방 형성의 조력, 산 자와 어린 나이에 죽은 자의 고통을 포용하는 역할, 공동체의 상생에 기반한 복의 원리이다. 전지전능한 신을 중심으로 산 자를 위해서만 기원하지 않고 죽은 자까지 안고 가는 것 또한 포용이다. 이와 같은 포용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보증하는 선에서 상생할 수 있게 된다. 조현설은 철학자 이기상이 <삼승할망본풀이>를 근거로 말한 바를 빌려, 우리 곳 문화 전반에 ‘화해’의 원리가 깔려 있는 것은 여성신에 기반한다고 하였다.<sup>145)</sup> <삼승할망본풀이>는 생명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탄생을 점지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신능이 원초적인 생산성을 대표함에 따라 뒤이어 구송되는 본풀이의 여성신은 양보와 포용의 원리를 근간에 둔 채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공>·<이공>·<삼공>의 여성신이 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여성성에 기반한 것이다. 그 과정인 통과의례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여성이 주체적인 역할로 신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제가 된다. 더 나아가 여성 서사를 통해 담당층인 민중들에게 있어 공동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교훈적 의미를 주는 것이다.

144) 강혜선, 「서사무가(敍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111쪽.

145) 조현설, 앞의 논문, 95-96쪽.

### 3. 종교적 의미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할 때 타인의 도움을 빌리기도 하는데, 정신적인 지지를 원할 때는 종교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신에게 닥친 불가항력적 상황들, 예를 들어 천지지변, 질병 등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만 할 때 절대적 존재자로부터 기원하여 위기를 헤쳐나가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에도 인간은 신에게 비넨다. 가족구성원에게 시험 합격, 취업, 승진, 사업의 성공 등의 사회적 지위 변화나 출산, 결혼 등 일생의례의 상황을 앞두고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큰곳에서 무속 근원적 차원의 신으로 <초공>·<이공>·<삼공>은 무조법을 통해 심방이 신과 염원하고자 찾아온 단골들 사이를 제의적 도구 등을 사용하여 신을 청하고 단골과 신의 말을 서로에게 전해준다.

무속적 질서는 <초공>에 기반하여 실제 곳판에서 따르고 있다. 전반적인 무조법은 무조신(삼시왕)인 젓부기 삼형제의 서사에 기반하지만, 인간 세상과 관련하여 무구의 실제 사용자인 심방의 내력에 대해서는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와도 관련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본마다 아기씨의 신직은 신당에 좌정 혹은 무구와 제기를 지키다 일임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아기씨가 무구와 제기들을 최초의 심방인 유정승 딱님애기에게 일임한다. 무구와 제기는 무속에서 주요한 제의적 도구로서 단순히 신을 제청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심방의 근원적인 역할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공>에서 신칼, 산판, 요령을 총칭하여 ‘멩두’라 일컫는다. ‘멩두’는 무조신의 영력이 내재한 무구로 심방의 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곳을 통해 신을 청하여 단골이 원하는 바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 심방 혼자서 곳판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특히 갓 무업을 시작하는 심방인 경우에는 심방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이미 초신질 신곳을 통해 동료 심방들에게 정식으로 통과의례를 거침에 따라 심방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곳이 공식적으로 심방임을 인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은 젓부기 삼형제가 아기씨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주자선생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너사무너도령과 의형제를 맺는 사건을 근원으로 한다. 너사무너도령은 이후 당을 지키는 아기씨와 함께 무악기를 담당하게 된다.<sup>146)</sup> 이에 따라 심방에게 <초공>은 무조신의 내력담인 것과 더불어 자신의 내력을 입증하고 무(巫)질서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공>에서 할락궁이가 어머니 제인장제의 징치와 원강암이의 재생을 위해 여러 꽃을 사용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신성시되는 것이 ‘꽃’이다. ‘꽃’은 근본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재생의 상징으로 인식”<sup>147)</sup>하여 쓰인다. 전자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형태로, 후자는 <이공>에서 ‘꽃’의 활용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나타난다.<sup>148)</sup> 궁극적으로 ‘꽃’은 생명성을 상징하는 화소로서, 큰굿 열두본풀이 서사 전반의 핵심 신화소로 등장한다. 또한, 제의적 측면에서 ‘지화(紙花)’의 쓰임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지화’는 신이 하강하는 통로이자 신을 위한 봉양 등을 목적으로 쓰인다.<sup>149)</sup> 심방의 역할과 관련되었을 때, ‘지화’는 중요한 무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원강암이의 신직을 중심으로 제의적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원강암이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을 통해 ‘고리동반’의 근원 서사가 된다는 점이다. ‘고리동반’은 앞서 <이공맞이> 제차에서 악한 전상을 내쫓고 ‘정화’의 기능을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때, 본주의 신체 중 아픈 부위에 가져다 대고 악한 전상을 쫓아내는 행위는 무속의 치병치례 속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원강암이는 다수의 이본을 통해 ‘저승어명’으로서 어린 나이의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을 돌보는 신으로 좌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공>은 아이 점지를 기원

146) 강소전, 앞의 논문, 160-165쪽.

147) 이수자, 앞의 논문, 2007, 431쪽.

148) 일반신본풀이에서 ‘꽃’은 <이공>을 중심으로 전후에 구송되는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바가 다르다. <이공>보다 앞에 구송되는 <천지왕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꽃 피우기 내기’가 주 화소로, 생명의 탄생을 강조한다. 반면, 이후에 구송되는 <세경본풀이>·<문전본풀이> 등에서는 꽃으로 인물을 환생시키는 것이 주된 화소가 되어 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 원초적인 생명의 구현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회복의 측면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후자의 경우가 무속의 제의적 차원에 부합한다고 본다. 신을 청하는 이유, 즉 인간의 상처 회복, 그리고 기존보다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이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를 제외하면 작은 곳에서도 구송된다는 점을 염두하였을 때 인간의 일생과 관련하여 의례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49) 양종승·최진아, 『서울굿의 신화(神花)』,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63쪽.

하는 불도맞이에서 구송되는데, 불도맞이의 주요 담당층은 어머니이다. 원강암이가 ‘저승어명’으로 좌정한 것은 서사적 측면에서 어머니 여성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직에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단골들의 염원이 원강암이에게 투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모두 ‘꽃’의 근원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꽃’은 도구적 역할을 넘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 즉 샤먼적 역할과 상응하게 된다. 이는 무속의 근원적 측면에서 신의 존재가 심방과 단골의 이해관계가 함께 어우러져 근간을 이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앙민들은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을 통해 방책을 구한다. 하지만 신앙민이 방책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행하지 않고 멈춰있다면 결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본풀이의 서사에는 신의 신성함과 더불어 신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때, 본풀이를 “그 삶의 과정 자체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사유방식”<sup>150)</sup>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신화 속 주인공은 전지전능한 신의 형상보다는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 “신과 인간의 근원적 동질성을 전제하면서 그 합치를 지향하는 것이 신화를 통해 현시되는 두드러진 신 관념”<sup>151)</sup>이 투영된 결과이다. 본풀이에서 신들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이들은 절대적인 주술을 부려서 그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다. 직접 부딪히거나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등 인간과 다름없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절대 주저앉는 법이 없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신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기도 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투영하게 된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홀로서기 어려울 때는 종교적인 힘을 빌리기도 한다. “샤먼은 심리적 위기를 통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힘”<sup>152)</sup>을 얻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초공>·<이공>·<삼공>의 여성신은 생산과 복력이라는 점에서 대지모신으로 관념한다. 대지모신은 자연의 생명력에 기반한다. 자연의 생명력은 인간 내면에

150)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관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359-360쪽.

151) 신동훈, 앞의 논문, 360쪽.

152) 조지프 캠벨, 앞의 책, 2013, 263쪽.

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 전승들에서 개인이 자신과 자연을 그리고 자신의 본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신화의 최종목적은 신에 대한 숭배와 경배가 아니다. 숭배의 대상은 개인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인격화한 것이다. 신화를 언급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잠재력이다.<sup>153)</sup> 인간 개개인은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 기반하여 자신이 처한 고난 또한 신들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이때, 언제나 타인과 배려와 공존을 잊지 않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충실할 것을 시사한다. 자신의 복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심방을 통해 신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그 과정에서 <초공>·<이공>·<삼공>의 근원인 신과 꽃, 그리고 전상이 전달의 매개체가 된다. 곶판에서 심방이 꽃을 통해 신을 청하여 단골의 곶은 전상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른 표현으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복을 위해 신을 청하고, 이를 위해 신은 직접적으로 복을 부여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방책도 무의미해지고 만다. 신의 목소리는 본질적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본풀이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신 또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의 메시지를 통해 해결 방향을 알게 되는 것 이외에 신의 내력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

153) 조지프 캠벨, 앞의 책, 2016, 53-54쪽.

## V. 결론

본고는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서사 분석을 토대로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은 주신(主神)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능력을 한정하여 관념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동계의 서사물, 본풀이 내에서 드러나는 서사 구조와 행동의 양상이 어머니의 역할로만 국한하여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여성신의 역할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신 모두 통과의례를 거쳐 신성한 존재로 거듭난다. 통과의례는 신성한 존재로 승화하기 위해 일련의 고난을 겪는 필수 과정이다. 여성신은 내부에서 외부로 자신의 거처를 이동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동의 원인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초공>과 <이공>의 여성신은 잉태한 몸으로 처음 '집'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때의 고통은 아들이자 주신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후, 어머니인 여성신이 죽음 혹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윤패를 겪게 됨에 따라 아들은 신성한 능력을 배우게 된다. 그 능력을 통해 여성신을 재생시키고 신으로 좌정한다. 여성신의 입장에서 이 과정은 고통의 극치이며, 주신과 동일하게 통과의례의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생된 이후에 신성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삼공> 가문장아기는 타고난 복의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대신,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이들의 상반된 행동과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자신과 닮은 성격의 마통이 형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막내 마통이로부터 이해와 배려가 수반되어 존중받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자신과 결탁한 누군가에게 복을 부여하거나 빼앗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막내 마통이와 결연함에 따라 계와시(거지)를 위한 잔치를 열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그 능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여성신이 지닌 생명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명의 잉태라는 여성의 생리학적인 특징에서부터 식물의 순환적인 생명 체계와 닮았다 여겨왔다. 따라서 고신화에서부터 지모신이자 곡모신으로서 관념해 왔다. 이와 같은 능력은 <초공>과 <이공>의 동계 서사물과 본풀이 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이름과 조력자로부터 그 능력이 두드러지고, 이와 달리 <이공> 원강암이는 그 주체적이고 선구안적인 능력에 초점이 좀 더 맞추어져 있다. 오히려 <이공>은 본풀이 서사의 주요 핵심이 생명성이라는 점에서 ‘꽃’ 화소를 중심으로 각 인물의 서사에 공통으로 내재하여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강암이는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보다 신성한 능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식물에서 유추된 여성의 생명성은 곧 농경사회의 풍요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삼공> 가쁜장아기가 가진 능력의 근본은 생명성에서 기인한다.

<초공>과 <이공>은 주신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 여성신은 본래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생명성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몸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주신과 여성신이 신으로 좌정함에 따라 각각 무조법과 주화(呪花)로서 무속의 제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법제법을 마련하게 된다. <삼공>은 가쁜장아기가 신으로 좌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기보다는, 마통이 삼형제와 접촉함에 따라 한층 더 발전된 문화의 산물을 전승해준다. 음식, 의복, 현물의 가치가 순차적으로 전승되는데, 현물의 가치를 알게 된 후 넓은 집을 사고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집으로 치환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된 의식주의 문화를 전승해줌으로써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마통이 두 형들의 반응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신능이 모두 인간 세상의 화합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초공>과 <이공> 여성신의 재생은 새로운 존재적 차원의 승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산 능력의 확장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신은 재생 과정을 거쳐 어머니의 원초적 생산력에서 비롯하여 신으로서 사람의 내·외면을 치유하는 치병적 속성을 가진다. 이 또한 샤먼의 속성이다. <초공>·<이공>에서의 여성신은 고난과 죽음(혹은 유폐)의 과정 이후 재생됨으로써 이들의 능력은 인간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된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는 신당 혹은 무구와 제기를 최초의 심방에게 물려준다. 심방이라는 인간과 신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신과 인간을 연결 짓는 자를 지상에 존재케 함으로써 신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이공> 원강암이는 저승유모로서 신의 좌정과 의례 중 하나인 ‘고리동반’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승유모는 아이를 잃은 부모와 마을 신앙민들의 근심 걱정을 원강암이와 같은 보살피는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게 된다. 곧, 내면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꽃’의 생명성에 근원하여 확장된 모습이다. 또한 <이공>의 꽃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원강암이의 신직은 동일선상의 맥락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원강암이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리동반’이라는 의례적 기원이다. ‘고리동반’은 본주의 신체 중 아픈 부위의 나쁜 전상을 풀어내는데, 이는 치병치례의 과정으로 ‘정화’를 의미한다. <삼공> 가문장아기는 계와시(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백일 동안 열어 자신의 부모를 찾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나눔의 정을 베푼다. 이는 타고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관계망을 통해 공존하는 가치를 배움으로써 신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서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화합을 중시하고 신의 힘을 빌려 치병치례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세 본풀이는 무속의 주요 화소에 대한 내력을 담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들을 종합하여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풀이 이름에 담긴 ‘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세 본풀이는 각각 신의 내력담, 꽃의 내력담, 전상(혹은 노)의 내력담이라는 점에서 “신뿌리, 꽃뿌리, 노뿌리”라 하였다. 그의 내력과 관련하여 주신과 여성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하게 된다. 각각 신으로 좌정할 때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가 연결되어 복을 부여하고 징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으로부터 부여되며, 여성은 신으로 좌정하면서 인계를 신계와 연결 짓고 인계를 포용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즉, 세 본풀이 모두 서사의 근간에 인간 세상의 화합을 위하여 여성신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공>·<이공>·<삼공> 모두 무속의 근원으로서 하나로 볼 수 있게 된다. ‘공’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궁(宮)’을 원형으로 하여 그

신성성과 더불어 무속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여성신이 가지는 여성성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하였다. 규명을 위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분류된 서사시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세 본풀이의 여성신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삼공>의 적극성과 그 신성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가문장아가 고형으로서 여성신의 원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초공> 노가단풍 즈지맹왕아기씨와 <이공> 원강암이는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혔는데, 가부장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여 더욱 굳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신 서사에서 이들은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고통의 한 부분으로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짜임새 있는 서사구조를 가짐으로써 여성신 모두 각 본풀이 내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모성성은 여성신의 신성함과 신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드러나는 능력인 것이지, 어머니라는 역할에 한정 지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가 신앙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하였다. 신앙민에게 신의 내력담은 신의 신성한 능력과 더불어 유희할 수 있는 서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희는 장시간 이어지는 굿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된 재미와 공감의 요소에 기반한다. 굿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신에게 그 방책을 구하고 신성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심방은 본풀이를 구송하여 신을 굿판에 칭하고 그 목소리를 신앙민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한국의 신들은 절대적인 권능을 자랑하기보다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 신앙민은 자신과 닮은 신의 모습을 통해서 한층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신능에 있어 화해의 원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풀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교훈적 의미를 내포한다.

본고는 <초공>·<이공>·<삼공> 여성신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여 신으로 좌정하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와 세 본풀이의 연계성을 위와 같이 규명하였다. 하지만, <초공>·<이공>·<삼공>이 큰굿에서 구연되는 주요 본풀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의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문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 본풀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음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더 나은 연구 성과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 東文選, 1991.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 \_\_\_\_\_, 『제주도큰굿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 \_\_\_\_\_,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_\_\_\_\_,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 강정식 외, 『제주도 동북신굿 : 무가편 ②』, 국립무형유산원, 2019a.
- \_\_\_\_\_, 『제주도 동북신굿 : 무가편 ③』, 국립무형유산원, 2019b.

### 2. 단행본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 김현선,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I : 원시 신화』, 까치글방, 2013.
- 조지프 캠벨, 구학서 옮김, 『여신들-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청아출판사, 2016.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201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3. 논저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멧두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_\_\_\_\_, 「‘꽃의 신화학’ 서설 :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55, 한국구비문학회, 2019.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강혜선, 「서사무가(敍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고은영, 「사록의 의미」,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_\_\_\_\_,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1, 한국무속학회, 2020.

구보라, 「<내 복(福)에 산다>형(型) 설화에 나타난 복관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신정, 「여성인물의 이동과 장소적 경험의 의미-<이공본풀이>와 <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김영일, 「한국무속서사시의 서사구조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김영주·이석주,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8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 김정호, 「한국 신화의 여성주인공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준기, 「당금애기 巫歌 研究」, 『高鳳論集』 15,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4.
-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 김현수, 「『삼공본풀이』에서 나타난 가문장아기의 생산력의 세 층위」, 『한국무속학』 41, 한국무속학회, 2020.
- 김혜정, 「자식 점지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 류정월, 「종교적 영웅 서사로서 <초공본풀이> 연구 - 무조신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국」,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박성은, 「<당금애기>를 통해 본 여성 삶의 원형 연구 - 딸에서 어머니, 어머니 신이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민속언어논총』, 제주문화, 1992.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_\_\_\_\_,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 \_\_\_\_\_,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_\_\_\_\_,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98.
- 신호림,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기호학적 의미」, 『기호학 연구』 46, 한국기호학회, 2016.
-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2010.
- 양영수,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탐라문화』 3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1a.
- \_\_\_\_\_, 「제주신화의 여성원리 : 그리스신화와와의 비교」,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b.
- 양용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통과의례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양중승·최진아, 「서울곳의 신화(神花)」,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윤정원, 「하늘·우주목의 상징성을 지닌 꽃의 현대적 변용」, 『미술문화연구』 11, 동서미술문화학회, 2017.
- 이경화, 「무조신화에 나타난 무조신의 형상과 신적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10, 제주학회, 1993.
- \_\_\_\_\_,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母神像)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어문학회, 1998.
- \_\_\_\_\_,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 이영지, 「'당금애기' 이야기의 공간」, 『배달말』 29, 배달말학회, 2001.
- 이영희, 「화소분석을 통한 이공본풀이 연구 - 안락국태자경, 안락국전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 -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 」, 『어문연구』 40(1), 어문연구학회, 2012.

- 이은희, 「한국 설화 여성인물의 영웅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향애, 「제주 여신 신화에 나타난 경계인의 형상화와 그 의미 -<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칠성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a.
- \_\_\_\_\_, 「제주 무속 신화 속 쫓겨난 딸들의 신직 좌정과 문화적 의미」, 『기호학 연구』 64, 한국기호학회, 2020b.
- 자자와, 「<콩쥐팥쥐> 설화 연구 -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장영란, 「한국 신화 속의 여성의 주체의식과 모성 신화의 전복적 기제」, 『한국여성철학』 8, 한국여성철학회, 2007.
- \_\_\_\_\_,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한국여성철학』 9, 한국여성철학회, 2008.
- 장장식, 「신화를 통해서 본 여성의 임무와 그 의미」, 『민속학 연구』 3, 국립민속 박물관, 1996
- 전주희, 「제주도 무구(巫具) '삼뎡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 연구』 29, 2011.
- 정경민, 「구비설화의 어머니 형상을 통해 본 모성과 여성 인식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경민·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 정제호,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쫓겨남’의 의미와 신화적 성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 \_\_\_\_\_,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의 역설적 복과 주체성」, 『한국무속학』 44, 한국무속학회, 2022.
-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 \_\_\_\_\_,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0, 2010.
- \_\_\_\_\_,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 - '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

- 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 『濟州島研究』 36, 제주학회, 2011.
-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분석」,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 최원오,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최원우,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 하경숙, 「〈가쁜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온지논총』 48, 온지학회, 2016.
- 한가연, 「설화에 나타난 동굴의 상징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陶南學報』 23, 도남학회, 2011.
- \_\_\_\_\_, 「〈삼공본풀이〉의 운명과 문명, 그리고 공존」, 『한국문학연구』 6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3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 Abstract

### <Chogong·Igong·Samgong Bonpoori> The Role and Meaning of the Goddess

Ji-Yeon Lee

This study clarified goddesses' roles and meanings by focusing on the narration of <Chogong Bonpoori>, <Igong Bonpoori>, and <Samgong Bonpoori>. Goddesses in Jeju Island myths are largely divided into mothers and active women. The former is applicable to <Chogong Bonpoori> and <Igong Bonpoori> and the latter is applicable to <Samgong Bonpoori>. Especially, the goddesses of <Chogong Bonpoori> and <Igong Bonpoori> were recognized as the instrumental roles as they were revived by their sons and main gods. However, the narration of <Chogong Bonpoori> and <Igong Bonpoori> has a significant affinity with Goguryeo's birth myth, <Jumong Myth>. They tried to improve the goddesses' roles in that they reverence Jumong's mother, Madam Liuhua. However,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limit the goddesses to mothers' roles as they have the equal narrative structure with the main gods.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existing awareness of goddesses and develop discussion based on this criminal mind.

For the narration of each Bonpoori, it the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and aspects of movement to places by focusing on the goddesses. The goddesses stay in space called 'houses' with their families and get to move to the outside voluntarily or by others. Conflicts between the goddesses and others in interior spaces become a major factor in movement by others. All of them get to move to sacred spaces or be seated as the goddesses in the end as

they suffer a series of pains in exterior spaces. At this moment, <Chogong Bonpoori> and <Igong Bonpoori> create sharper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and the more complicated relation structure than <Samgong Bonpoori>. It's because they need to go through many stages to be born again as holy beings as they are not the main gods. In addition to this rite of passage, it could be found that the goddesses were originally the holy beings. It could be found that the goddesses are the extraordinary presences through the part they overcome their crises as animals like turtles, birds, etc. appear when they suffer pains. Above all, it could be guessed that the goddesses have the instinctive ability as their names reveal the instinctive vital forces in the beginning of <Chogong Bonpoori>.

The goddesses' roles were divided into three things based on their common personaliti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narration. It focused on the point that production and the ability to enjoy good luck, the people who create and spread cultures, and the divine ability which is deeply related to harmony of human life. They play a role of displaying the ability to produce new things to men in cultural layers beyond women's fundamental vital forces and bring them good luck. Furthermore, they play a role of a messenger who spread new cultures to the worlds of human beings. In case of Gameunjangagi in <Samgong Bonpoori>, Matung in a low level spreads cultures of a high level regar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the three brothers. The two Bonpooris mentioned above are different from it in that they newly create cultures which are deeply related to shamanism. In conclusion, all of the goddesses show the principle to look at and embrace nobility of positions and economic gaps in the worlds of human beings equally through the divine ability. But they also show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by punishing the people who harm their communities and seek their own profits definitely.

The study could draw the three meanings of the goddesses in <Chogong

Bonpoori>, <Igong Bonpoori>, and <Samgong Bonpoori> based on the narr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roles. First, the three Bonpooris have the root of shamanism and accounts of people's life of the important attributes through women's narration with the main gods. Therefore, 'Gong' which has a common name in Bonpooris means an aggregate as a root of shamanism. Second, it could be found to be women's original form revealed in primitive, ancient, and medieval epic poems. The women's original form was expanded into the principle of embracement and reconciliation based on each goddess' femininity and maternity. Finally, it tried to draw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because Bonpooris are recited in shamanist rituals. God's voice is delivered to regular customers through Simbang. The process that the goddesses suffer and overcome their pains in the narration of the three Bonpooris makes the regular customers reminisce their lives. It's because the goddesses are, comparatively, very similar to men and try to solve the problems personally rather than using the gods' omniscient and omnipotent ability. Therefore, it has an instructive meaning in that what gods eventually say to men can be grasped through Bonpooris. Ultimately, the goddesses in <Chogong Bonpoori>, <Igong Bonpoori>, and <Samgong Bonpoori> investigated and revealed the point that they are born again as the holy beings and the principle of harmony in the narration is important based on original femininity.